외대학보

진리 평화창조

1998년 3월 24일 (화) 제708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조규철 편집인겸 주간 변혜철 편집장 김정희 인쇄인 홍윤주 외대신문사 961-4151, 962-7128(F)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961-4152, 4466 FAX 961-4183 (용인) 0335-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재단투쟁, 학생들이 일어선다

서울 1600명 운집, 교육부항방, 총학 제안서 재단에 전달

서울배움터 학생회가 박승준 전 재단 전무이사 비리와 관련한 재단사태에 대한 대응방법을 급선회했다. 당초 일주일간 학생선전을 목적으로 한 이동학생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총학은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도입, 박승준퇴진과 외대발전의 열기를 고취시켰다.

월요일인 지난 16일에는 비상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를 소집하고 400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상황을 공유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때 한학생이 "박승준비리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건 학생"이라며 학생들이 직접 박이사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날인 17일(화)에는 비상과총회가 열려 각 과의 외대발전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으며 18일(수)에는 비상전체학생총회가 열렸다. 재적인원 6740명 중 1616명이 참가해 성공리에 치러진 이날 전체학생총회에서는 같은날 총학생회에서 재단에 전달한 공개질의서의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32대 총학생회장 오승훈(상경·경영 4)군은 "외대 정체의·주범인 박승준을 해임하고 학교발전 의지없는 재단의 근본적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약 1300여명의 학생들은 교육부앞으로 항의방문을 다녀왔다.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이 항의방문에서 부총학생회장과 사회대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등이 대표단으로 뽑혀 교육부의 박창신 대학지원과장을 만났다. 대표단은 이틀동안 3500여명이 서명한 서명용지를 전달하는 한편 학생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교육부 항의방문 후에는 다시 방이동에 있는 박이사의 자택 '해태빌라트'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기도했다. 같은 시간 총학생회장과 외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외발추)장은 국회 교육위원장 김현욱(동문,자민련)의원을 만나 면담을 나누기도 했다.

한편, 총학생회는 재단측에 △박이사 추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재단이사회개혁 △자곡동 이전과 양배움터 특화발전을 전제로 한 상설기구건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질의서를 보내고 20일(금)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나 확실한 답을 받지 못하자 재차 제안서를 전달했다.

▶ 관련기사 3면

또; 오늘(24일)은 박이사측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계속 무산돼오던 이사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박윤정 기자

지난 18일(수) 서울배움터 1천 6백여명의 학생들이 노천에 모여 비상전체학생총회를 갖고, 교육부와 박승준 전 전무이사의 집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항의방문 과정에서 학생들은 '박승준 사법처리와 외대 발전 쟁취'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이날 총학생회는 국회 교육위원장과의 면담과 함께 교육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임승희 기자

빈의자 — 또 반미인가(?)

▲너무나도 갑작스레 IMF는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들은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하라고 강요한다. 그래야만 너희가 산다면서. 흔히 요즘 세상을 경제전쟁이라고 부른다. 전쟁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IMF는 우리나라와 싸워, 더 자세히 우리 민중들과 싸워 이기려 한다. 준비없는 싸움은 지게 마련인지라, 우리는 반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채 백기를 들었다. 아니 우리가 반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몰아부쳤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음모라는 냄새가 난다.

▲세계 정치 및 경제 중심지인 워싱턴. IMF와 세계은행, 미국의 핵심관계자들이 모여 세계자본주의 재편을 위해 어떻게 하면 신자유주의적 경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더 잘 관철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마침내 90년대 초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합의에 도달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국가에 대선이나 총선이 끼면 좋다고. 그래야 구조조정 의지가 없는 정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서로 다른 지지 계층과 기반을 가진 중도 성향의 정당 2개가 연합할 때 가장 이상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구조조정에 따른 손실을 걱정하는 각종 이익집단을 무마하기 위해서다. 이는 이익 집단들이 이 연립정권에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 참여한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구조조정을 지지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시사저널 3월 19일자 참고)

▲너무나 딱 맞는다. 너무나 치밀한 전략과 전술에 한줄기 식은 땀이 흐른다. 그들은 정권교체를 이룬 뒤 본격적으로 싸움을 걸어왔다. 그들이 결국 바라는 것은 정권교체나 DJP 연합정권이 아니라 그들 입맛에 맞는 우리 경제의 개편이기 때문이다. 정리해고를 요구했고, 완전한 시장개방을 요구했고, 높은 이자율을 요구했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요구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다 이뤄졌다. 지금 그들은 우리 아버지의 땀과 노동의 열매를 따먹고 있다.

▲이쯤와서도 그것은 음모가 아니라 우연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지 모른다. 백번 양보해서 우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우연을 미국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지 않은가. 준비된 '음모'이든 '우연'이든 간에 IMF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워싱턴'이지 않은가(본보 706호 참조). IMF의 한국개입은 '월스트리트(미국)의 승리'라는 독일 신문 기사가 생각난다.

미국의 승리는 우리의 패배이다. 전쟁에서 적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것과 싸워야 한다. 질수야 없지 않은가. 공정한 IMF 재협상을 요구하고 IMF 배후의 미국을 몰아내야 한다. 그래서 또 반미인 것이다.

박윤정

황인목군, 오는 27일(목) 공판

오늘 내일 양일간 일일주점 열려

작년 5월 서울배움터에서 열린 '김영삼 퇴진과 사법처리를 위한 애국외대 투쟁선포식'의 시위주동자혐의로 수배됐던 황인목(법·법학 4, 96년 법대 학생회장)군의 1차 공판이 오는 27일(금)11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01호에서 열린다. 공소장에 표기된 황군의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 △화염병 사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6개항목이다. 이에 지난 19일(목) 황군의 동기인 법대 93학번을 중심으로 후원회가 꾸려져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후원회에서는 오는 24일·25일(수) 학생회관 앞에서 '변호사 선임을 위한 일일주점'을 열 계획이다.

황군은 수배된 후 6개월가량 피신생활을 하다 지난 12월 초순경 자수를 해 현재 불구속기소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후원금을 내려면 법대후원회로 연락하거나 계좌번호 상업은행 126-08-512855(예금주 김재경)으로 입금하면 된다.

사령

임

사진부차장 임승희(동양·터키어 2)

대학부차장 김묘주(경상 2)

박일천(경상·무역 3)

사회부차장 한상준(서양·독일 3)

— 외대학보 —

알림

1. 발행일 하루 지연

기자들과 조판소의 사정으로 인해 708호가 화요일(24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 본보 만화기자모집

본보에서는 3면과 9면 만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만화부기자를 모집합니다.

만화에 재능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대상 : 외대에 재학중인 학생
- 모집방법 : 면접
- 문의전화 : 서울 (02)961-4152
  용인 (0335)30-4112

— 외대학보 —

서총련 개강투쟁선포식 개최

류재을 열사추모와 김영삼 사법처리 주장

지난 3월 20일(금)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은 건국대에서 '류재을 열사 1주기 추모제 및 김영삼 체포결사대 결성을 위한 서총련 개강투쟁선포식'을 가졌다.

서강대, 홍익대, 한양대 등 서울시내 10여개 대학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 서총련 학생들은 류재을 열사 사망 1주기를 맞아 류열사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고 김영삼 사법처리와 공정한 IMF 재협상, 학생자치권 수호 등을 결의했다.

류열사 사망 1주기를 맞아 추모제에 찾아온 고 이한열 열사 어머님 배은심 여사는 "96년에 수석이가 교육재정확보를 외치다가, 작년에는 재을이가 대선자금 공개를 외치다가 죽었다"라며 "불의에 맞설 수 있는 당당한 젊은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임시의장 손준혁(영남대 총학생회장)군은 "김영삼의 사법처리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파탄지경으로 내몰린 민중의 요구"라고 밝혔다. 또한 손군은 오는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영남대에서 열릴 예정인 6기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가 평화롭게·진행할 수 있도록 김대통령과 검·경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사회부

지면안내

수강신청 변경기간 의미 상실 3면
용인배움터 새내기들은 수업도 못 들어보고 수강신청변경을 한 일이 있었다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수강신청 변경기간 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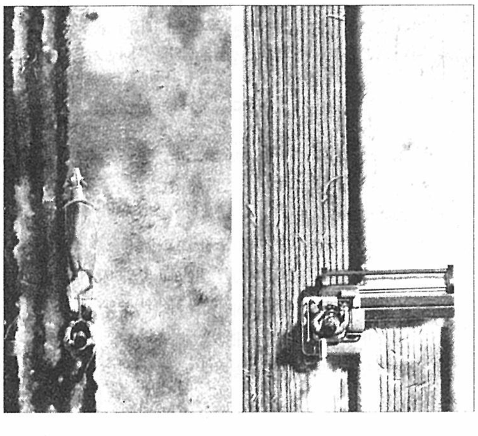
올바른 과학기술 발전 위한 과학기술 민주화 5면
과학기술의 참여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과학기술민주화를 위한 모임 간사 송영민씨를 만났다. 인간이 과학을 정복할 것인가, 과학이 인간을 정복할 것인가!

새내기, 동아리 지원현황 6면
'취업대한' 시기 영어·컴퓨터동아리, 새내기로 넘친다는데.
그러나 봉사·사회과학 동아리도 "새내기 많아요"

3·13 특사 평가 8면
언론에서는 '건국 최대'라며 떠들어 댔다.
552면여명 중 양심수는 74명, 빈수레가 요란하다?

농가부채 탕감·통합의료보험 실시를 비롯한 농정 대개혁 실현!

소는 트랙터로 바뀌었지만 빚은 늘어갈 뿐입니다



해마다 농·수산부는 "올해는 어떤 작물이 유망하다"며 책임지지 않는 말들로
농수산물 가격의 폭락을 가져와 급기야는 농촌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율이 5%인 유통과정의 현실에 농민들의 어깨는 또한번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농가부채는 탕감되어야 합니다

해마다 불어나는 농가 부채로 농민들은 앓고 있습니다
실패한 영농정책의 산물인 농가부채는 더이상 농민들의 몫일 수 없습니다

통합의료보험 실시로 농가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힘든 노동은 그만큼 많은 의료혜택을 요구합니다
평범한 농민들이 내는 의료보험료가 대기업의 상무급입니다
의료보험통합은 도시의 여유있는 보험료를 적자에 허덕이는 농촌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새날을 여는 민족 자주 언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사설

정부의 고통분담 논리

경제위기 원인규명 선행되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정부와 재벌이 내놓은 해결책은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한다는 것이었다. IMF구제금융신청이라는 국가부도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이 논리는 여전히 만고불변의 진리인냥 국민의 눈과 귀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물론 고통분담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올바른 고통분담이란 공평해야하고, 경제 위기의 원인을 본질적으로 파헤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전제되어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재벌이 주창하고 있는 고통분담 논리는 우리 경제위기의 본질을 호도하며 국민에 대해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시키고 있는 듯하다. 16일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실업자수가 2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또한 올해 들어 벌써 고용불안과 생활고로 4명의 노동자가 자살했으며 도산한 중소기업가나 실업자들의 비관자살도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급속한 성장둔화와 물가상승, 기업의 부도·도산, 임금의 동결 및 삭감, 세금인상 등으로 국민의 생활고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와 재벌은 IMF의 경제구조조정 요구를 이행하면서 자신들도 고통을 분담하고 있으니 국민들에게는 실업의 위험과 생활고를 참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분담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IMF가 요구하고 있는 경제구조조정의 본질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독점자본의 개발도상국 죽이기 공략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재벌이 IMF의 요구를 한마디 항변도 없이 넙죽넙죽 받아들이면서 자신들도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재벌은 현 국가부도 사태를 불러온 1차적 책임자이다.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등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고 재벌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 사업, 상호지급보증 등을 금지시키는 것은 고통분담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바꾸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고용불안과 생활고를 참으면서 경제위기의 고통을 분담하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1300만에 이르는 임금노동자와 500만 농민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개발독재 하에서 자신이 일한 만큼의 댓가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는 없다. 보장받지 못하던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는 커녕 더 심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3월 19일자 '시사저널'이 독점 공개한 IMF·IBRD·미국의 '워싱턴 컨센서스'의 내용이 뒷받침해주고 있듯, 현재 IMF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독점자본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게 경제구조를 재편하고 개발도상국을 자신들의 신식민지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우리 경제위기의 본질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작업과 현 사태를 몰고온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기 위한 경제청문회의 개최,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독점자본의 이익만을 관철시킨 IMF와 재협상이다. 이제 더 이상 구태의연한 고통분담의 논리는 유효하지 않다.

흡산의 소리

흡산은 HUFS(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an의 준말입니다

글을 받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는 외대인의 기상을 받습니다.

- 자격 외대인(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① 제한 없음 ② 아래 제시한 주제중 찬·반의견
- 매수 200자 원고지 4매
- 마감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방법 학생기자실(학생회관 2층) 방문 또는 컴퓨터통신(하이텔, 나우누리(DEDAE))

학내여론수렴의 창구역할을 다하고자 98년부터 특정주제를 가지고 외대인의 <찬반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펼쳐보십시오.

이주의 주제 : 수출만이 살길이다(수출지상주의)

-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이주의 주제

학교도서관 24시간 개방

반대한다

학교행정적 조치 선행되야

도서관 24시간 전면개방은 우리 도서관이 외대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문 7천명 뿐만 아니라 왕산 6천명까지 매년 1만3천명의 학생들을 본교 도서관이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매년 시험 때만 되면 심각하게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도서관의 24시간 전면개방을 시험기간 외에도 시행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의구심이 든다. 먼저 도서관의 전면개방을 위한 각종 도서관 행정상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 도서관 경비에서부터 청소, 각종 복지시설의 가동, 사람이 한적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등은 당연히 선차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의 정문도 동시에 24시간 개방돼야 한다. 청소년 범죄 등을 이유로 개방하지 않고 있는 정문을 학교측이 여러가지 생길 수 있는 사태의 예방대책을 마련하면서까지 도서관을 개방하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실제 필요성의 문제이다. 비단 시험기간이 아니더라도 많은 과제물 때문에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의문이다.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과방이나 동아리방 등 밤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않고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학교행정 차원의 뒷받침돼야할 각종 제도적 장치의 마련없이 무작정 24시간 개방하자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 생각한다.

강민홍〈서양·독일어 4〉

찬성한다

도서관 설립목적을 살려라

앞으로의 사회 즉 다가오는 21세기의 사회를 지식, 정보의 시대라고 한다.

그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그런만큼 지식과 정보를 쉽게 접할수 있는 학교 도서관은 우리 대학생들에게 필히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배움의 자리터라고 말할수 있다.

만약 중요한 배움의 자리터가 한정된 시간으로 운영된다면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저버리는 동시에 주인의식을 간과하는 처사라고 이해할 수 있다.

대학생은 대학의 주인이다. 다수의 학생들이 '도서관 24시간 개방'을 원한다면 대학 관계자는 즉각적으로 이 의견에 동조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전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낭비 그리고 재정난의 어려움 등 문제를 들수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교육을 위한 투자를 목적으로 도서관을 설립했다는 취지를 가졌다면 '도서관 24시간 개방'은 무모한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역기능이라고 볼 수 없다.

요즘 학교 도서관의 수요는 예전과는 달리 증대되고 있다.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면 IMF의 영향으로 빚어진 취업난이라 본다.

졸업생이 취업하지 못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례와 같은 가슴 아픈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재학생들은 취업의 어려움에 대비해 취업의 정열을 고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배움의 자리터인 학교 도서관이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 취지를 지닌 동시에 IMF시대의 영향으로 빚어진 취업난에 따른 도서관의 수요를 감안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김경표〈상경계열 1〉

학교인가 군대인가?

얼마전 나는 학교에서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을 목격하고 당황과 분노로 며칠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다.

매년 이맘때면 신입생들의 발랄한 모습에 내우 활기를 띈다. 올해도 변함없이 신입생들의 모습은 매우 의욕이 넘쳐보이고 힘이 있어 보여,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기운을 북돋게 한다. 하지만 얼마전 나는 학교에서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을 목격하고 당황과 분노로 며칠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다.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이라면 대개가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고참에게 맞고 후임병을 때리는 그런 관례말이다. 다 지난 얘기라 지금 이렇게 쉽게들 얘기하고 어느정도 필요했던것이라 얘기들 하지만 다들 구타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이르러서는 없어져야 하는 그런 나쁜 관례라는 데에 동의를 한다.

그리고 지금 군에서도 아주 강도 높게 구타 근절을 해 나가고 있다. 구타가 일시적인 복종과 겉으로 드러나는 존경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굉장한 매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짧은 시간안에 굉장한 효과를 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전부 허위에 불과하며 오히려 깊은 증오를 낳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일 것이다. 나도 군생활동안 많은 고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례에 대해 그냥 순종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가지 원칙은 갖고 살았다. 고참에게 맞아도 절대로 후임병은 때리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말이다.

아직도 나는 이점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내게 다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사건이 며칠전 그것도 신성한 강의실에서 버젓이 벌어졌다. 다름아닌 학군단생도들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과 학회 예비학교가 있다기에 6시 쯤 인문과학관 6층을 가보았는데 많은 학회가 98학번 예비학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강의실안에서 선배 생도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구타를 목격하였다. (강의실 안에 있었지만 맞는 소리가 너무 커서 섬짓하기까지 했다.) 밖에서 망(?)을 보는듯한 선배 생도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들이 공부하는 강의실에서 그것도 98학번들이 지켜보는 예비학교 옆에서 그런 비이상적인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수 있을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학군단 생도들은 이 나라의 장교로서 군복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과연 하급자들에게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선다. 작게는 앞으로 군에 들어갈 후배들을 그들에게 맡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도저히 그냥 넘어가서는 아니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일이 학군단전체 퍼져 있는 관례가 아닌 단순히 몇몇에 의해 벌어진 작은 실수였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이상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으면 한다. 다시 말하자면 진정한 경의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복종은 결코 구타로 해결이 되지않는다.

정 화〈동양·중국어 3〉

백지대자보

과연 최우수 재단비리 대학에 걸맞군

-민주학생-

주제: 직원 불친절에 대해…

직원에게 명찰을 달아 소속, 지위, 이름을 알도록 하자.
-명찰장수-

진짜 심하다
-심술이-

직원에게 월급주는 학생은 좋은 주인이다. 머슴들아 친절하지 못하면 해고 시킬켜
-강-

누가 돈을 내는가? 알수가 없다
-궁금한 이-

한마디로 부족하다

-투덜이-

학적과가 유명하죠
-왕불만-

법대교학과 그 아저씨 정말 무섭다
-법대새내기-

안기부 같은 놈들…
-총련이가-

직원평가제를 실시해야…
-감사원장-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재단 문제를 빗대어)
-신 외대속담-

난 괜찮아
-총장-

제발 설명좀 해줘. 뭐가뭔지 알아야 안물지.
-나-

불친절 best10을 매주 선정·공개하자
-손범수-

말수말

전교조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

윤종건
〈사범대 교육학담당교수〉

개인적으로 나는 한국의 전교조 운동에 대해서는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교원노조 합법화에 대해서는 찬성은 하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사실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로 말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우선 교원들에게 노동조합운동이 합당한가에 대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이말은 교직이 노동직이냐 아니냐의 문제와 맥을 같이한다. 교원노조를 찬성하는 입장은 교직이 노동직이며 따라서 교원노동조합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교원노동조합이 허용되고 있으며 ILO에서도 교원노동조합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교원노동조합의 결성을 반대하는 입장은 교직은 노동직이 아니며 전문직이 아니며 전문직으로서 자율적인 단체 결성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굳이 교원노동조합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일단 교원노조를 허용할 것이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허용시기는 분명치 않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으로 교원노조에 대한 찬반 의견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다 그동안 전교조 운동이 교육계에 미친 영향과 그로인해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정서적 앙금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어 왔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교직 사회안에서 교장, 교감들을 투쟁대상으로 삼고 그들에게 대들고 학생들을 선동하여 풍파를 일으키는 전교조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지금까지 전교조가 비록 불법적인 단체로 규정되고 그들의 행동이 탄압을 받아 왔지만, 그들의 투쟁이 교단의 민주화를 앞당기고 교육계의 정화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교유계 내부에서도 전교조 운동에 대한 시각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다. 일일이 모든 문제를 여기서 다룰수 없지만 어쨌든 나는 교원노조 운동을 찬성한다. 그것은 보다 강력한 단체가 앞장서서 진정한 교육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침체된 교직사회에 활기를 불어놓고 교원들의 권익을 옹호하며 실추된 교권을 확립하여 참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서자.

1997학년도 생활협동조합 결산공고

(단위 : 원)

과 목	제 4 기 금액	
1. 매출액		(1,457,755,010)
상품매출	1,102,263,780	
제품매출	355,491,230	
2. 매출원가		(1,258,645,476)
상품매출원가		836,824,227
기초 상품 재고액	41,554,670	
당기 상품 매입액	844,383,989	
타계정으로 대체액	755,552	
기말 상품 재고액	48,358,880	
제품매출원가		421,821,249
기초제품 재고액	0	
당기 제품제조원가	421,821,249	
기말 제품 재고액	0	
3. 매출 총이익		(199,109,534)
4. 판매·일반 관리비		(365,705,529)
직원급여	161,744,970	
상여금	31,865,000	
잡급	32,072,630	
퇴직급여충당금전입	17,284,352	

과 목	제 4 기 금액	
복리후생비	33,635,102	
여비교통비	5,799,710	
접대비	1,656,514	
통신비	3,070,330	
세금과 공과금	155,260	
감가상각비	34,246,073	
수선비	626,150	
보험료	2,874,760	
차량유지비	2,016,940	
운반비	56,000	
교육훈련비	7,657,100	
도서인쇄비	5,423,000	
회의비	3,816,100	
사무용품비	1,567,040	
소모품비	4,809,818	
지급수수료	10,136,220	
광고선전비	1,371,000	
기밀비	1,800,000	
잡비	436,460	

과 목	제 4 기 금액	
총회비용	1,565,000	
5. 영업손실		(166,595,995)
6. 영업외 수익		(145,913,272)
이자수익	2,347,287	
매입할인	267,650	
수입수수료	208,000	
공중전화수입	1,608,330	
장려금	127,416,179	
잡이익	14,065,826	
7. 영업외 비용		(19,763,513)
기부금	16,176,800	
공중전화통신비	1,905,640	
잡손실	1,681,073	
8. 정상손실		(40,446,236)
9. 특별이익		(0)
10. 특별손실		(0)
11. 법인세 차감 전손실		(40,446,236)
12. 법인세등		(0)
13. 당기순손실		(40,446,236)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제4차 생활협동조합 정기대의원총회

조합정관 제22조(총회의 소집), 제23조(총회의 소집통지),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에 의거 생활협동조합 정기대의원 총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조합 1년 사업을 심의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1998년 3월 31일 16시30분
2. 장 소 : 후생관 소극장
3. 부의 안건
   - 제 1 호 의안 : 1997 회계년도 감사보고서 승인
   - 제 2 호 의안 : 1997년 사업 및 결산보고 및 잉여금 처리
   - 제 3 호 의안 : 199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제 4 호 의안 : 정관 개정(안)
   - 제 5 호 의안 : 1998년 임원 승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서울총학 재단전달 제안서 분석

"박승진 퇴진은 시작일뿐이다"

착복 재산환수, 재단이사회 개혁, 외대중흥위원회 설치 등 요구

지난 20일(금) 서울배움터 총학생회가 재단(학교법인)앞으로 보낸 '외대중흥과 재단개혁을 위한 총학생회 제안서'는 현 재단사태와 앞으로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총학생회의 의견이 집약돼 있다. △박승준추방과 재발방지 △학교발전방안 △재단이사회개혁방안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정관개정과 합의사항 준수 등 4영역에 걸쳐 제시된 이 제안서는 총학의 대응이 박승준퇴진에서 외대발전으로 한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단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이에 학생들의 항의방문이 어제 진행되기도 했다.

제안서의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박승준이사에게서 재단이사직을 완전히 박탈하고 외대에서 영구히 추방함으로써 비리전력이 있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도록 보장하라는 내용이 있다. 이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무이사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또한, 박승준·이양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부정축재한 돈을 환수하여 학교발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재산을 추적할 가칭 '망실재산추적반'을 재단 사무처 산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 그 후에는 이사장이 공언한 바 있는 투명한 재단운영을 위해 재단의 모든 재산을 공개함과 동시에 매년 예결산을 공개하도록 해 재단비리를 사전에 막아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학교발전 방안에 대한 제안은 박승준 퇴진만으로 외대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크게 △자곡동 부지를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전환할 것 △서울·용인 특화발전 △21세기 외대중흥위원회설치 등으로 나뉜다. 총학생회가 현재 수익용기본자산으로 등록돼 있는 자곡동 토지를 교육용토지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현재 외대의 공간문제는 한계상황을 넘은지 오래인데다 대학설치기준령에도 못미치는 이문동에서는 외대발전은 커녕 현상유지도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둘째로 서울·용인특화발전의 경우는 양배움터의 중복 학과가 많음으로 하여 비효율적인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외대발전을 위해서는 용인은 자연대와 공대를 확대하고 의대·약대까지 신설하는 한편 서울은 인문사회과학 중심으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요구안은 서울총학이 중심적으로 고민한 부분이므로 용인총학과의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 셋째, 21세기 외대중흥 위원회는 재단·교수·학생·동문이 각 동수로 구성되고 위원장을 총장으로 하는 강력한 외대발전추진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이곳에서 자곡동이나 양배움터 특화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단이사회 개혁에 대해선 이사의 임기와 3연임불가를 명시하고 있다. 또 1인에 의한 독단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 이사장·동문회·사회유지 등을 골고루 참여시킴으로써 견제세력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현행 사립학교법의 허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이사회의 감사선임문제에 대해선 감사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투명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재단사무처의 무능한 운영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마지막 재단정관개정 부분은 학생들과의 합의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 구성된 재단이사회가 독소조항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정관개정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 제안서의 내용들은 아직 재단에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부분이고 또한 이후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개진 작업이 진행돼 내용을 풍부히 할 필요성이 있긴 하나 외대발전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크게 평가받을 만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윤정기자

거짓말쟁이 용인배움터 후생복지관의 물컵 자외선 건조기는 아무리 문을 꼭 닫아도 하늘색 불이 켜지지 않으며, 이미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붙어있던 온수히타 고장에 관한 메모는 2달째 그대로다.

임승희 기자

용인 새내기 수강신청 변경일정 무리

새터일정으로 수업 못 듣고 변경

행정편의주의 지적도… 피해최소화 해야

수강신청변경은 잘못 표기한 과목과 누락된 과목을 확인, 정정하고 수강신청한 과목을 1주일 동안 수업을 들어본 후 자기의사에 따라 다른 과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또한 듣고 싶은 과목이 있을시 추가로 과목을 신청할 수 있다.

용인배움터는 지난 9일(월)부터 13일(금)까지가 수강신청 변경기간이었다. 그러나 지난 2일(월) 신입생 입학식이, 4일(수)부터 6일(금)까지 새내기새로배움터(새터)가 있었다. 이로인해 신입생들의 수업은 일주일동안 하루(3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입생들은 각 수업강의내용이 어떤지 알길이 없다. 따라서 그 다음주에 있었던 수강신청 변경기간이 신입생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이번 수강신청 변경의 문제점은 새터가 3월초에 진행되는 바람에 학생들이 수업에 못 들어간 것에 있다. 이에대해 김성래 교무주임은 "교육부와 학교당국에 의해 학사일정이 정해졌다"며 "학생측이 이를 무시하고 새터행사를 강행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학생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 민경국(자연·물리 3)군은 "학교당국은 1년 학사일정을 계획하는데 학생측과 논의를 거의 하지 않는다"며 "새터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학사일정의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대학당국의 일방적 행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피해당사자 중 한명인 국윤필(자연·물리화학부 1)군은 "새터일정이 그렇게 잡혔으면 학사일정에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대학생활을 처음 접하는 신입생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이번 새터에 참가했던 유현재(자연·화학 2)군도 "첫째주 수업에 못 들어가 강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번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수강신청과목을 변경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강의내용도 모르는데 과목변경을 한다는 것이 무리인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대학당국은 학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잡고 학생회에 통보하는 방식이었다. 그로인해 새터일정문제도 있었고 현 수강신청변경기간 일정문제도 대두됐다. 대학당국은 각성하고 학사일정에 있어 열린 대학으로서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한다. 또 이번 경우처럼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수강신청변경기간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을 면하는 길일 것이다.

총학생회 또한 새터일정이 미뤄진 이유를 학생들에게 설득력있게 말하는 한편 학생들이 받은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승준 기자

취재낙수

식상해도 할건 하자!

얼마전 기자는 용인배움터에 가기 위해 500번 버스를 타러 교대역에 갔다. 언제나 그렇듯이 올 98년도에도 역시 버스를 타려는 학생들의 줄로 지하철역 앞은 혼란스러웠다.

버스를 타자 사람이 많아 자리에 앉지 못한 새내기로 보이는 한 여학생이 "우리학교는 깔끔하고 예쁘게 생겼지만 교통이 너무 불편해 도저히 다닐 수가 없다"고 말하자 친구로 보이는 한 학생이 '맞아! 아무래도 가까운 학교로 편입을 해야 할 것 같아'며 불만을 토로했다.

매년 이맘때면 학내에서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떠오르는 교통문제. 이제는 본보에 교통문제관련 기사를 싣는 것도 '식상'할 만큼 너무나 많이 다뤘던 사안이다.

그러나 역시 '식상'할 만큼 대학당국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교통문제에 대해 아무리 학생들이 떠들어도 대학당국의 변화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97학번 이상 학생들에게 교통문제는 이제 더 이상 불만사항이 아니다. 울다 지쳐 자고 있는 애들처럼 지쳐버린 용인배움터 '헌내기'들도 더 이상 아무런 항의도, 노력도 하지 않는다. 혁신의 의지가 전혀없는 대학당국처럼 학생들도 변해간다.

대학당국이 잘못하고 있다면 어떻게든 시정하도록 투쟁을 벌이던 선배들의 모습은 용인배움터 어떤 곳에서도 더 이상 찾아볼 수 가 없다.

내년 이맘때, 또다시 울다 지친 아이가 되있을 새내기들의 모습이 보인다.

김겸신 기자

공대생, 원치 않는 수강취소

교무행정착오로 수업시간 겹쳐

얼마전 용인배움터 교무처에서 배정한 수업시간 중 교양필수로 돼있는 실용영어 수업이 산업공학과 2학년 전공수업과 겹치게 배정돼 산업공학과 학생들이 둘 중에 한 강의를 취소해야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문제로 인해 산업공학과 2학년 학생들은 원래 거의 같은 단대 학생들끼리 듣던 실용영어 수업을 약 5명씩 나눠서 다른 시간대 수업을 듣는 쪽으로 변경했는데, 많은 학생들은 실용영어 수업을 취소했다. 이 문제는 수강신청 기간이 아닌 변경기간에 실용영어 수업이 전공수업과 겹치게 된다는 것을 공고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산업공학과 학생들은 "학교측에서 강사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일부러 수업시간을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바꾼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무처 김형래 주임은 "강사를 줄이기 위해 강의시간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 원래 그 수업은 9교시로 배정이 돼있었으나, 9교시에 강의시간을 배치하면 이후 다시 한 번 교직원 버스를 한번더 운영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한 돈이 들어 간다"며 강의 시간 변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보통신공과대 학생회 집행위원장 배현석(정보통신공학과 4)군은 "내가 알기로는 강사를 줄이기 위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문제로 인해 실용영어 수업을 취소하지 않은 산업공학과 학생들이 어문계열 학과 학생들과 수업을 같이 듣게되어, 상대적으로 학점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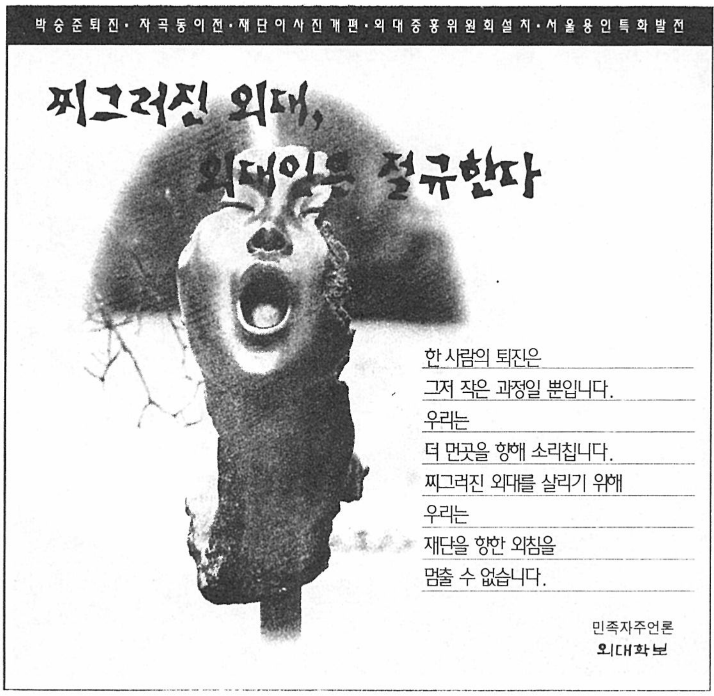
또 총학생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학자추) 위원장 민경국(자연·물리 3)군은 "어떤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공문을 보낼예정이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매년 일어나는 수강신청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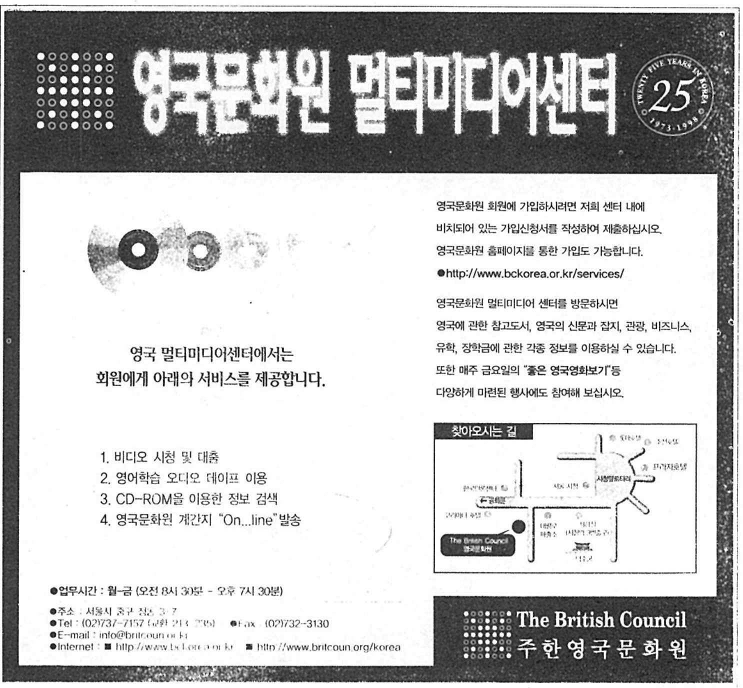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에 대해 회피만 하는 대학당국. 학생들의 의견을 단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수업시간을 변경한 대학당국에 공대 학생회와 총학생회는 여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점점 줄어드는 학생들의 의견 수렴 구조를 이번 기회를 통해 개선하려는 학생회의 투쟁방안이 기대된다.

이승준 기자

알림 글 받습니다

—외대학보—





이제 더이상 안전한 직업은 없다 3-실업의 원인과 배경

한국경제파탄, '계획된 종속화'의 예정된 결말

세계시장 장악위한 미국의 '한국 죽이기'… 대량실업 필연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과 IMF가 요구하고 있는 경제구조의 조정은 한국경제를 그들의 이익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편하려는 기초공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들의 전략인 노동시장유연화는 적은 수의 사람과 싼 임금으로 생산을 하겠다는 것. 적대적 인수합병은 한국기업을 자유롭게 접수하겠다는 것이며, 금융시장의 완전개방은 한국에서 번 돈을 세금 한푼 안내고 자신들의 금고로 가져가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미국과 IMF의 요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또한 심각하다.

실업대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원인,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편집자

<글싣는 순서>

1. IMF시대, 고용현실과 고용구조변화
2. 고용위기의 원인
   ①세계자본의 신자유주의
3. **고용위기의 원인**
   ②한국자본주의와 IMF
4. 고용위기에 처한 사람들
5. 대안- ①산별노조, 일자리나누기
6. 대안- ②자립적 경제의 토대구축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시작된 '무상원조'에서부터 지금의 'IMF구제금융'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는 철저하게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왔다. 지금의 IMF한파는 어릴 때 미군으로부터 얻어 먹던 초코렛값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 초코렛이 지금의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왔고, 그 초코렛을 얻어 먹었던 그 시절의 사람들은 지금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메이고 있는 것이다.

2차세계대전 후 패권적 지위를 차지한 미국은 정치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하여 신흥독립국들을 신식민지적 방법으로 접수해 들어갔다. 민족자주세력을 억압, 말살하고 친미적인 세력들로 지배블록을 형성한 후 남아도는 잉여상품과 잉여자본을 원조의 방법으로 투여함으로써 경제침략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던 것이다.

한국경제 또한 해방 후 미국에 의해 철저하게 종속되어왔다. 그 방법은 '직접 지배'라는 방식이 아닌 대리정권과 매판재벌을 통한 '간접적 지배와 착취'였다. 해방이후 남한에 주둔한 미국은 무상원조와 기술, 원자재를 집중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친미정권과 매판재벌을 육성했고, 기만적인 농지개혁을 통해 지주제도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봉건적인 착취구조를 유지하였다.

미국은 원조라는 방법을 통해 한국경제 재생산 구조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신식민지적 경제정책을 실시했다. 한국정부에 형식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경제 종속화를 통한 정치, 군사적 통치를 실현하는 신식민지 정책을 통해 한국을 지배해 왔던 것이다. 한국경제에서 매판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산액의 67.7%에 이르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한국경제는 '식민지 경제'인 것이다.

수출주도형 경제발전과 저임금

'미국과의 식민지 관계'라는 조건 속에서 한국경제는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시작하였다.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 원자재는 외국에서 일체 수입하고, 상품의 유통 판매를 위한 시장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 의존하게 되었다. 실례로 원유, 면화, 원당, 생고무, 소기름, 양털, 알루미늄, 콕스탄 등은 100%, 원맥은 96.6%로 화학펄프는 94.3%, 고철 90%, 동광석 91.0%, 통나무 87% 등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962년에서 81년까지 기술도입비율은 제조업은 100%에 달했고, 중화학공업은 평균 83%로 거의 외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자본 또한 외국에서 빌려다보니 외채가 늘어나고, 원자재를 수입하다보니 수출을 할수록 수입이 늘어 항시적인 무역적자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무역적자는 다시 외채를 빌려다 메꾸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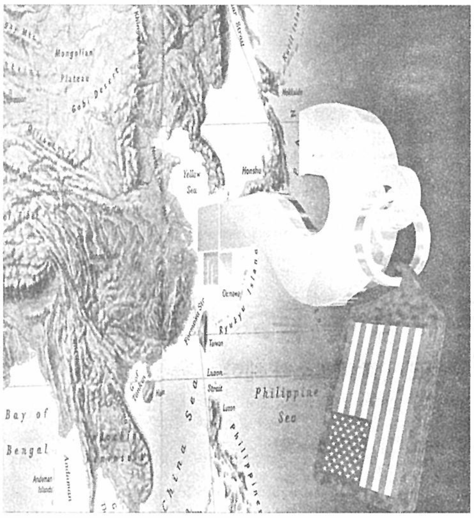
해외에서 도입하는 기술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낡은 기술이었으며 이러한 기술로 만들어진 상품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었다. 예로 삼성자동차의 기술과 설비는 기술제휴 운운하지만 사실상 일본에서 폐기한 기술과 설비를 그대로 수입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오로지 싼값에 팔 수밖에 없는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싼값의 상품을 만들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이다. 저임금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반발을 억누를 억압적 통치체제가 또한 필수적이다. 미국의 비호를 받는 독재정권이 공권력을 통해 극악무도한 통치체제를 유지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것이다.

미국의 개방압력과 한국경제파탄

한국경제의 식민지 구조를 바탕으로 미국은 한국의 외채를 통해 막대한 이자와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료를 가져가고 거기다 원자재를 수출하고 필요한 상품을 한국을 통해 헐값에 사들이는 등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본시장 개방과 수입자유화를 강요하여 국내 산업을 완전히 파괴하며 한국의 부를 끌어가는 노력을 줄기차게 진행하여 왔다.

90년대 들어서 미국경제가 소위 쌍둥이 적자로 표현되는 위기가 닥치자 미국은 이를 정치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시장개척으로 해결하였다. 시장개방의 압력을 몰고 온 우루과이 라운드협정을 통한 WTO체제의 출범이 바로 그것이다. WTO체제는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통해 무역에서의 국경을 없애고 전세계를 미국식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로 재편하는 체제이다. 특히 미국의 농산물과 정보통신 산업, 금융 산업의 우위를 전세계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체제인 것이다. 이 WTO 체제를 통해 우리경제는 그 종속성과 식민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그나마 남아있던 국내의 산업기반마저 완전파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종속성, 식민성을 본질로 하는 한국 경제가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 더 이상 선진자본주의 국가로부터 이전 받을 기술이 없으며 그전에 이전 받은 기술은 후발 개도국들이 더욱 더 경쟁력을 갖고 있는 형편이다.

외채에 의존하는 자금구조와 만성적인 무역적자는 막대한 금융비용을 지출하게 만들어 외환 보유고를 감소시키며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또다른 빚을 끌어와야 하는데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급락하면서 외채를 빌릴 수도 없게 되어버렸다. 한국경제의 파탄은 어느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 철저히 만들어진 것이다. 세계화 논리 속에서 세계시장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경제침략에 의해 한국경제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IMF는 한국경제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 미국에 의해 조절되고 있는 한국경제는 실업대란을 몰고 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IMF식 구조조정과 실업문제

요즘 IMF 구제금융 이후 경제구조를 조정해야한다고들 한다. 미국과 IMF가 한국경제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에 의해 조절되고 있는 한국경제는 실업대란을 몰고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조금이라도 이익금을 많이 챙기려는 저들의 속셈이 적은 수의 사람과 저임금으로 생산을 할려고 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바로 그러한 정책이며, 적대적 인수합병의 허용은 한국기업을 자유롭게 접수 하겠다는 것이며, 금융시장의 완전개방은 한국에서 번돈을 세금 한푼 안내고 자기의 금고로 가져 가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상식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하고 생산된 상품의 소비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IMF는 투자를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대량 실업과 저임금을 만들어 내면서 한국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IMF의 이행조건 대로 한다면 한국경제는 완전히 식민지 경제구조로 변해 버린다. 또한 대량의 실업자를 양산하게 된다. 한국정부와 합의한 경제성장율 1%는 150만명의 실업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은행자신 8% 확보는 투자를 못하게 해 기업의 부도를 유발하는 것이며 이 또한 실업자를 양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실업대란으로의 구조조정

매년 6-7% 정도로 경제성장을 해온 한국경제가 IMF와의 협상대로 한다면 마이너스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 많은 경제연구소의 경제전망에서 나오고 있다.

여러 경제전망을 통해 분석해보면 올해 실업율은 최소 200만명에서 최대30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3월 현재 실업자가 170만에 달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200만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200만'이라는 수치는 정부의 계산 방식이라는 것이다. 실질적인 실업자는 정부 발표의 2배가 되며, 가장이 실업자가 되면 한 가정이 부도가 나게 된다. 여성의 가사노동 대가까지 합치면 그 수는 상상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민간경제 연구소나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망처럼 마이너스성장이 될 때 실업자는 더 늘고, 정부의 투자가 위축되면 소비자가 구매력을 잃게되어 아무리 물건을 만들어도 팔지못해 부도가 나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고 경기침체는 장기화 될 것이다.

또한 IMF의 요구에 의해 총통화 증가율을 13-14%로 낮춤으로써 한국은행이 자금을 회수함에 따라 자금시장이 경색되게 되며 이에 따라 기업은 비축자금이 필요하게되고 자금을 비축함에 따라 자금시장은 더욱 경색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중 자금난이 가중되어 금리는 상당히 인상될 것이며 이로 인해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어 도산기업이 속출할 것이다. 이러한 금융' 논리 외에도 생산과 판매가 난조에 빠져 도산하는 기업도 속출할 것이며 이런 도산 사태는 제조업뿐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유통업, 소규모 상업, 서비스업에도 미쳐 거의 전 산업과 업종이 초토화되는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

특히 도산 대상에는 부실은행도 포함되어 있어 각 은행들은 대출금 회수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는 곧바로 기업의 자금압박으로 이어져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

IMF가 요구하는 이행조건 데로 경제구조를 조정한다면 엄청난 실업대란이 몰아칠 것은 틀림없다. 마땅히 해야 할 재벌해체, 정경유착구조 근절 등 경제개혁은 하지 않고 정리해고 합법화, 돈을 묶는 방식,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투자 보장으로의 구조조정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완전히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한국경제를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가는 길임을 정부와 재벌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소말리아의 내전과 인도네시아의 폭동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말리아나 인도네시아에서도 IMF 구제금융이라는 이름의 태풍이 불었고, 지금도 불고있는 것이다.

여호수
〈민주주의민족통일울산연합 노동국장〉

만나보기 - 과학기술민주화를 위한 모임 간사 송영민

"인간 빠진 과학기술은 무용지물"

'과학기술민주화를 위한 모임'은 언제 어떻게 결성되었는가

작년 7월에 있었던 '생명공학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추진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동안 과학기술 시민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해오던 여러 교수와 연구원, 그리고 '다른 과학 편집위원회', '과학기술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모임'의 성원들이 뜻을 모아 준비위원회를 꾸렸고 작년 11월 22일 참여연대의 한 위원회로 출범하게 되었다.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임을 만들었는가

과학기술은 시민의 감시나 의사반영이 불필요한 전문가의 특수영역으로 신비화되어왔기 때문에 과학기술관련 정책은 민주주의보다는 엘리트적, 관료주의적 의사결정이 마치 정당하고 최선인 것처럼 간주되어 왔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운동단체조차도 과학기술의 사회정치적 측면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과학기술에서의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보다 인간적이고 생태친화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위에서 궁극적으로 보다 평당한 대안적 사회질서를 촉진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그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가

제도연구사업팀, 출판 및 시민교육사업팀, 국제협력사업팀, 기관지사업팀(다른 과학 편집위원회), 학생사업팀(강한 모임)이 구성되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수, 연구원, 학부생, 대학원생, 과학교사, 일반 시민 등 60여명의 회원들 뿐아니라 대중적 참여를 유도하는 주제별 월례토론회를 열고 있고, '과학기술민주화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두 차례의 토론회도 가졌다. 또한 이번 달부터는 '21세기 새로운 과학기술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9주 교육강좌를 준비하고 있으며 1년에 두 번 기관지 '다른 과학'이 나온다.

'과학기술의 민주화'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정보화나 과학기술의 발전만 이룩하면 저절로 살기좋은 복지사회가 올 것이라는 논리가 널리 유포되어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인간의 통제력을 잃게 되거나 오히려 인간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과 안정은 위험해진다.

과학기술의 민주화란 과학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과 과학기술의 사회적 문제해결에 과학기술의 사용자인 대중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과학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게 유도하고 과학기술이 진정으로 인간을 위해 쓰이게 만드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합의회의, 참여설계, 과학상점, 시나리오 워크샵 등의 좋은 사례가 있다.

시민사회가 성숙한 서구의 사례가 우리나라 상황에 잘 들어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처음 출범했을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고민해왔었다. 제도연구사업팀이 주도적으로 고민하고있는데 서구의 사례와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기존의 과학기술정책 수립관행의 문제점을 지적, 우리 현실에 적합한 이론적 대안을 내어오기 위해 노력중이다. 지금은 시작한지 출범 초기라 교육, 선전하는 사업에 주력을 두고 있다.

이지연 기자

이 책 전세계를 향한 반 제국주의 외침

"IMF 구제금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 "경제가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 이는 과연 누구의 목소리인가? 누구하나 명확하게 대답하기를 주저한다. 그러나 멕시코 치아빠스주의 '사빠띠스따'는 단호히 얘기한다. "미국의 경제침탈과 멕시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사빠띠스따! 그들은 누구인가? 20세기 초 멕시코 혁명의 영웅인 에밀리아노 사빠따로부터 이름을 딴 사빠띠스따는 토지, 식량, 교육, 보건, 서비스 그리고 존중 등에 대한 평범한 농민의 요구를 내걸고 있다. 농민·원주민 280여개 조직으로 구성된 그들은 NAFTA, IMF를 통해 멕시코 경제에 침투하려는 미국과 그에 편승한 멕시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발하여 헬리곱터, 탱크, 대포로 중무장한 멕시코 정규군과 맞서 4년 넘게 투쟁을 해오고 있다.

사빠띠스따들은 멕시코 내부에서 농민, 학생, 노동자, 여성, 원주민 등 광범위한 민중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정부의 탄압을 견뎌내고 있다. 또한 그들은 전세계적으로 활동가와 지지자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원동력은 정부의 언론자유 봉쇄를 뚫을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스페이스이다. 그 결과로 치아빠스의 한 정글마을에 사빠띠스따를 지지하기 위해 전세계 42개국에서 3천여명이 모여들었다. 게다가 이들의 부사령관 '마르꼬스'의 호소력도 한 몫을 더한다.

현실 사회주의 몰락 이후 변혁적 움직임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투쟁이 전세계적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자본이라는 폭주기관차의 질주-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항한 자생적인 폭발로부터 체제 전체에 도전하는 일국적이고 또한 국제적인 풀뿌리 대중 운동들로 발달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율적 마르크스주의자이며 사빠띠스따 행동위원회의 활동적 일원인 이책의 저자 해리 클리버 교수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의 대중들은 80년 광주에서 87년 노동자 대투쟁에서 그리고 지난해 겨울에 보여주었던 저항의 강인성과 집단적 행동의 역량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 사빠띠스따 투쟁에 대한 여러 가지 성찰들 속에서 우리들 대다수가 당신들 자신의 노력 속에서 발견했던 것 만큼 많은 자극을 발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김민석 기자

김대중 정권의 과제와 전망 3

사회운동, '흡수'와 '견인' 갈림길에 서다

제도권으로 흡수 아닌 제도권 견인으로

<글싣는 순서>

1. 김대중 정부의 정치적 과제와 전망
   정대화(상지대 교수, 정치학)
2. 김대중 정부의 경제적 과제와 전망
   장상환(경상대 교수, 경제학)
3. **경제위기속의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정치사회학)

신 정부의 '합리화' 논리에 대응하여 국가 및 제도장치를 '전방'에서 견인하는 것이 사회운동의 역할로 대두되었다. 위는 노동자들의 투쟁 모습.

80년대 이후 일련의 정치변동의 성격을 필자는 개발독재적 예외국가가 '수동혁명'적 방식으로 자본주의적 '정상'국가로 이행하여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초기에 일정하게 정치적, 사회적 기반을 확보하였던 개발독재적 예외국가는 그것에 대한 민중들의 '동의의 철회'로 인하여 지배의 위기를 맞게 되고 이를 계기로 하여 '수동혁명'적인 방식으로 국가권력의 재조직화가 이루어져가게 된다. 연성독재라고 표현되는 노태우정권 및 민선민간정부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변동은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천민자본주의 혹은 정실자본주의로 표현되는 한국자본주의의 왜곡된 구조는 개발독재적 예외 국가 하에서 고착화된 비정상적 국가-자본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70년대 말부터 고도성장체제의 위기에 대응하는 전환이 시작되었으나, 정치변동의 수동혁명적 전개는 고도성장체제 하에서 고착된 왜곡된 축적기제를 혁신하지 못하고 기존의 축적기제의 변형에 머무름으로써, 글로벌한 세계경제의 흐름과 고도성장체제의 괴리가 커지게 되고 이것이 극단적인 외환위기로 현상화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적전환에서의 위기와 경제적 전환에서의 위기로 인하여 복합적인 성격을 띄는 야당연합정부로서의 신정부가 출현하게 된다. 즉 수동혁명적 정치변동 속에서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인하여 글로벌 경제화에 상응하는 고도성장체제의 혁신을 단행하지 못한 데서 파국적인 경제위기가 출현하였고, 또한 구 지배블럭의 '변형주의적' 재편에 의한 국가권력의 재조직화 만으로 정치적 안정성을 획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다 더 '진보적'인 대안으로서 김대중정부가 수립되게 되었던 것이다.

바로 사회운동은 이러한 복합적 상황 속에서 한국경제와 사회의 진보적 개편을 추동하여야 하는 과제 앞에 서있다고 하겠다. 먼저 경제개혁과 관련하여, 사회운동은 강요된 개혁의 주체화의 문제, 즉 신정부가 구조개혁을 왜곡된 고도성장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향에서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추동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상품시장 및 금융시장의 개방화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사회운동적 대응의 문제가 있다. 즉 전세계를 단일한 자유시장으로 재편하여 글로벌한 수탈을 조직화하고 있는 초국적 자본에 맞서 '경제주권'을 지키고 초국적 자본-산업자본 및 금융자본-의 지배에 저항하는 국제적 연대구조를 만드는 과제에 사회운동은 직면하고 있다. 나아가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과 경제적 구조정적으로 인하여 새롭게 구조화되는 '신빈곤'의 문제에 대한 대응문제에 사회운동은 역시 직면하고 있다.

신정부의 성립을 일부로 하는 국가권력의 재조직화는 바로 이전에 반민주적인 것으로 저항의 대상이 되었던 국가권력의 재편을 의미하고, 이는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의 실질적인 '해체'가 진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회운동은 먼저 어떻게 반민주질서의 '해체적 재구성'을 가속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둘째로 어떻게 '민주 대 반민주 구도' 이후 질서를 보다 진보개혁적인 방향으로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서 필자는 '이행기적 국면'에서의 '이중전략'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 이중전략은 반민주질서 해체운동과 반민주질서 '이후 질서'의 진보적 구축운동의 결합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제도정치에서의 개입운동과 대중운동의 경합이라는 점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영역에의 진보적개입'의 결합, 구이슈에 대한 투쟁과 신이슈에 대한 투쟁의 결합이라는 점에서도 관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민주질서의 해체운동은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의 4가지 왜곡된 측면에 대한 폭넓은 '정상화' 운동을 포함한다. 즉 민주주의의 불완전성을 극복하는 운동, '천민적 자본주의'를 정상화하기 위한 운동, 분단반공냉전적 사회질서 정상화하기 위한 운동, 보수적 시민사회를 내부로부터 혁신하는 운동은 반민주질서를 개혁하는 운동의 중요한 영역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 '정상화' 운동에서의 사회운동의 주도성이 향후의 국면에서의 주도성의 향방을 결정짓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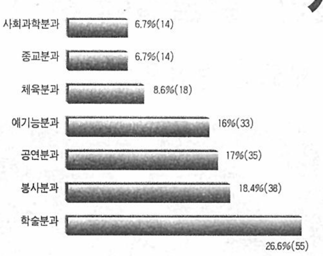
보수 대 진보 구도로의 이행이 일종의 '왜곡된 근대'를 정상화하는 과제라고 한다면, 범지구화, 정보화, 생태주의적 도전, 양성평등화 등으로 촉발되는 탈근대적 급진운동의 전망을 결합해야 하는 과제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권력과 자본의 다면적인 포위'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신이슈에 대한 운동진지들을 폭넓게 개발하는 과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진보개혁적 파트너쉽에 기초한 공동행동을 통하여 '전투적' 민중운동과 진보적 신사회운동 간의 동맹의 '세계운동사적 전형'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물은 변화발전한다. 그러한 변화발전은 위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기회이기도 한 상황을 사회운동에게 부여하게 된다. 그것을 기회로 만드는 것은 사회운동의 몫이다. 우리가 국가, 제도정치, 사회운동의 3수준으로 나누어 본다면, 또한 신정부의 출범이 자본주의적 '정상' 국가로의 이행의 과정 속에 있다고 파악한다면, 신정부의 출범은 국가적 수준 및 제도정치적 수준에서의 일정한 '합리화'를 진척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합리화는 기존의 국가 및 제도정치의 왜곡된 대의기능의 일정한 '정상화' 및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의 사회운동의 역할을 국가적 기능 및 제도정치적 기능으로 흡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국가 및 제도정치의 '합리화'의 진전으로 사회운동의 실천적 몫이 흡수되어 간다면, 신정부의 수립은 사회운동의 '재앙'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리화'에 대응하여 사회운동이 국가 및 제도정치를 '전방'에서 견인할 수 있는 인시과 자세를 갖춘다면 신정부의 수립은 사회운동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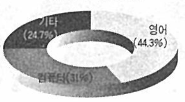
새내기 동아리 지원 현황 분석

시대흐름 뛰어 넘은 개성찾기

〈각 분과별 지원비율〉



〈학술분과 지원현황〉



〈조사방법〉 서울배움터 동아리 연합회의 분과 분류 방법(11개분과)을 채택하여 전체동아리 내의 각 분과별 지원비율을 각 분과 내의 동아리 지원비율을 조사했다.
단, 분과별 지원비율의 ( )안 숫자는 각 분과에 지원한 평균 인원이다.

동아리 지원현황 조사결과 타 분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지원율을 나타내고 있는 곳은 26.6%의 학술분과 였다. 봉사분과와 공연분과, 예기능분과의 경우 평균 17%의 지원율을 보였으며 체육분과와 종교분과, 사회과학분과는 평균 7.35%의 저조한 지원율을 보였다.

한편 영어, 컴퓨터, 문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술분과가 타 분과보다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게 된 것은 영어와 컴퓨터 관련 동아리가 학술분과 내에서 75.3%의 높은 지원율을 나타낼 정도로 폭발적 관심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윤(동학·아프리카어 1)군은 "영어는 기본이다. IMF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이제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며 영어동아리를 택한 이유를 밝힌다. 이런 추세는 졸업생만을 위해 열었던 취업강좌가 전 학년의 학점으로까지 인정되는 현 '취업대란' 시대를 반영하는 흐름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각 분과 내의 동아리 선호도 편중성도 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 예기능분과의 경우 그림·만화관련 동아리 지원율이 과반수 이상인 60%로 나타나는데, 이는 최근 영화에까지 도입되고 있는 애니매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체육분과는 예전에 인기있던 배구, 야구, 축구 등의 호응도가 29.9%로 극히 낮아진 반면 수영, 테니스, 볼링 등의 인기도가 7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힘든 스포츠는 기피하고 고급(?) 스포츠를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사회적 흐름에 따라 특정 동아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새내기들이 무조건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보람있는 대학생활을 찾으려는 노력이나, 자기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관심분야를 찾아 나서는 새내기들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직을 위해 실력향상에 힘써야 하고, 자기 관심사만을 찾게 되는 사회 전반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이 아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학생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분과의 호응도 중 봉사분과가 18.4%로 두번째 높은 기록을 나타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해 준다. 특히 수화봉사동아리 '손말사랑회'는 90여명이 지원했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 사회과학분과나 종교분과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기는 하지만 예년에 비해 지원자수도 늘어났고 관심도높아졌을 뿐 아니라 찾아오는 학생들의 과도 다양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배움터 동아리 연합회장 이상건(서양·불어 3)군은 "대학교육이 직업교육화 되고 있다는 비판속에서 이런 폐해로 특정 동아리에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이는 단편적인 흐름에 불과하며,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들의 관심이 다양하게 퍼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말한다.

김겸신 기자

생활 시평

태극기 뒤 검은 손

프랑스계 할인점 체인 '까르푸'가 한국 고객들의 지독한 외제 거부 심리에 굴복했다. 이 회사는 '까르푸'라는 간판을 내리고, '한국 까르푸'라는 새간판을 모든 점포에 내걸기로 결정했다. 전세계 18개 국가에 308개 점포가 있지만, 까르푸라는 이름을 내린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까르푸 취급 상품의 95%는 한국상품"이란 플래카드를 걸고 상품진열대 곳곳에 태극마크도 부착했다. 직원들도 회사이름을 Carrefour에서 한국 까르푸로 바꾼 명함을 다시 찍었다. 한때 학생 가방시장을 휩쓸었던 상표 '이스트 팩'도 최근 판매하는 가방에 태극기를 달아준다. 요즘같은 시기에 어떻게 외제를 살 수 있냐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이다.

점포마다 태극기가 물결친다. 점포마다 우리는 로얄티를 한푼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선전하기 바쁘다. 그들의 노력이 가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소비자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한다. "저 매장을 이용하면 외화가 빠져나간다"며 이용을 꺼려하던 학생들도 태극기와 플래카드를 보며 '안심'하는 듯 하다. 비록 외제지만 '그래도 태극기가 달린 상품을 구입했다'는 만족감은 '로얄티가 지불된다'는 불안감을 불식시키고도 남는다. 오히려 '태극기=애국'이라는 천박한 애국심마저 조장하고 있다. 최근 부쩍 태극기를 부착한 상품이나 태극마크 뺏지가 날개돋친 듯 팔리고, 태극기를 달고 다니는 택시가 늘어난 것은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로약티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플래카드가, 이스트팩 가방에 붙여놓은 태극기가, 까르푸에서 한국 까르푸로 바꾼 간판이 그들의 출신을 바꿀 순 없다. 우리는 상업적 판매를 위해 우리의 국기를 이용하는 그들의 행태에 분노해야 한다. 태극기 하나로 국민들의 소비행태를 장악해보겠다는 생각이 착각이었음을 인식시켜줘야 한다. 그와함께 우리가 알아야 할 한가지 사실. 국산품 애용운동은 외국과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비자들의 간접적인 노력이지 결코 뒤틀린 민족주의나 천박한 애국심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문화부

서울 배움터 학생식당을 가다

천원대 음식에 담긴 억대 노력

직원들, "일은 많아졌는데 보수는 그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3,000개 식권이 나갔는데 올해는 5,000개로 늘었다" 학생식당 영양사 이설향씨의 말이다. 그러나 일하던 식당 아주머니들은 "학생은 늘었는데 직원은 그대로다보니 일이 더 힘들어졌다"고 한다.

서울배움터 인문과학관 1층에 자리잡은 학생식당. 학생들에게는 IMF 시대를 이겨나가는 알뜰 식사공간이지만 식당직원들에게는 삶의 터전이다.

오늘의 점심메뉴는 '팔보채'. 1만원이 넘는 시중 가격의 1/10인 1천원대로 제공되는 팔보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 전날 다듬어 놓은 재료를 욕조만한 찜통에 넣고 젓는다. 재료는 요리하기 전날 꼭 다듬어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일이 많아져 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큰 주걱으로 젓는데 기자의 힘으로 꿈쩍도 하지 않는다. 하루에 20kg짜리 쌀이 20여개가 사용된다니 반찬의 양이 얼마인지 상상이 갈 것이다. "그래도 볶음밥에 비해서 팔보채는 쉬운 편이다"며 웃으시는 조리장 최덕규씨. 그는 "식당일이 바로 노가다"라며 일의 고됨을 빗대어 얘기한다. 또 "80평 식당은 너무 좁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다"며 작업환경에 불만을 터뜨린다. 이 시설을 가지고 음식의 맛을 개선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점심을 준비해 놓고 이제 식기 반납구로 간다. 11시 30분부터 학생식당은 붐빈다. 친구끼리, 선후배끼리, 연인끼리 이야기하며 점심을 먹고 있는 학생들. 잠시후 깨끗이(?) 비워진 식기가 들어온다. 쟁반, 그릇, 반찬통을 분류해서 설겆이 기계에 넣는다. 왜 이렇게 많은지 일을 도와주는 기자도 정신이 없다. "학생들이 그릇 별로 분류해서 놓아주면 일이 좀 수월할텐데" 한 아주머니의 아쉬움섞인 한마디가 들린다. 점심 배식이 얼마되지 않아 벌써 음식쓰레기가 넘쳐난다. 하루에 음식쓰레기는 점심때만 큼직한 대야로 7개나 나온다는데 처리비용이 한달에 1백만원이라고 한다. 그때 뒤에서 한 아주머니가 쟁반 좀 날라달라고 부른다.

이것이 오늘도 총 5,000개 나간다는데. 서울배움터 학생이 7천명이니 까 3명중 2명꼴로 학생식당을 이용한다는 말이다. 학생식당은 어느새 대학생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곳이 됐다. 이런 생각도 잠시, 이제 겨우 오전 12시 넘었을 뿐인데 식권을 사기 위한 줄과 배식하기 위한 줄은 끝이 없다. 일이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 보인다.

식당직원은 12명의 정규직, 16명의 일용직등 총 30여명이다. 한 사람당 하루 167명의 식사를 맡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일용직 아주머니들은 일자리가 불안하다. 방학과 같이 한가할 때는 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여금도 없다. 정규직이라고 해서 특별히 대우가 좋지도 않다.

"열심히 해도 누가 잘 알아주지 않는 것이 식당일이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한다. 일한만큼 보수도 안나온다"라며 주방장인 유관희씨는 말한다.

식당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학생들의 생각에 대해 그들은 "학생들에 비해 직원이 너무 적고 일이 고되다 보니 친절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다"며 미안해한다.

요즘 학교는 '재단무쟁'으로 들끓고 있다. 이 속에서 외대를 사랑하자는 말이 나온다. '외대사랑'은 무엇인가. 외대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식당직원들에게 작은 관심이나마 기울이는 것부터 출발해야하지 않을까. "잘 먹었습니다"이 말 한마디에 그들은 고된 삶을 달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너비아니는 '불고기'의 옛말입니다.

<II>인도의 음식문화 I

너비아니

채식의 보편화

인도인들에게는 (특히 북부 인도에서) '짜빠띠' 또는 '로띠'라는 통밀빵과 함께 밥 그리고 일종의 콩수우푸인 '달'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음식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카레(정확한 발음은 커리)는 음식이름이 아니고 인도음식의 토대가 되는 모든 양념과 향신료를 포괄하여 부르는, 영구인들에 의해 지어진 이름이다. 기본이 25개나 되는 양념과 향신료 중에서 음식재료와 조리법에 따라 몇 가지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음식을 만들 때마다 신선하게 갈아서 쓰는데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이 다양한 카레 덕분에 인도음식이 세계3대요리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달-바뜨(밥)'에 이 카레에 넣고 만든 야채, 달걀, 머튼, 닭, 생선 반찬이 한,두어가지 첨가되고 거기에 우유나 웅유(다히)와 같은 유제품까지 섭취하면 전형적인 인도식사를 한 셈이다. 인도음식에는 채식이 발달했으며 자칭 채식주의자도 많고 채식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채식을 많이 먹으며 채식주의자를 존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도의 음심문화의 기원은 기원전 2,5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인더스 문명시대에 빵, 콩류, 야채, 향신료 등의 섭취는 지금과 마찬가지였다. 육식을 아주 많이 했다는 것이 현재와 다르다. 기원전 1,500년 인도에 들어온 아리아인들이 그 영향권을 넓혀 가며 인도의 현재 식관습의 토대를 확고히 했다고 할 수 있다. 점차로 음식의 재료, 음식 종류, 조리법 등이 다양하고 정교해졌다. 특히 인도인의 식관습에 유제품이 중요하게 되는 데에는 아리아인의 영향이 컸다. 유제품으로 우유와 웅유, 기이(우유기름), 버터 등을 아주 다양하게 사용했다. 소는 아리아인들의 베다문화의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세에 무슬림의 인도도래와 그 영향으로 인도음식에는 견과, 건포도, 향신료, 기이 등이 첨가되어 영양이 풍부하고 풍미해졌다. 역사의 흐름과 함께 변화된 식관습은 채식이 많이 보급되었다는 점이다. 채식의 사상적 토대는 고대 인도의 프로테스탄트인 불교와 자이나교에서 주장한 아힌사 사상 즉 불살생원리이다. 거기에 소의 경제적인 유용성, 왕들의 통치편의, 생태학적인 변화, 종교지도자들의 우월권 확보 경쟁, 인도대중의 지위향상 노력 등이 함께 작용했다. 우유차의 보급은 근대에 영국인의 영향이다. 한마디로 현재의 인도의 음식문화는 인도의 약 5,000년의 역사가 녹아져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김우조
〈인도어과 교수〉

문화옹달샘

새책

패권시대의 논리

한겨레신문사
7,000원

김민웅 지음

이책은 6년간 필자가 미국에서 바라본 조국의 문제를 염두해 두고 한반도의 선택; 미국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주제로 하여 쓴 글을 모았다. 시대착오적으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는 냉전잔재의 청산과 민족의 자주, 평화통일 그리고 탈패권적인 국제질서의 확립을 주장하는 이 책은 더 이상 늦기 전에 남과 북이 손잡지 않으면 냉전 이후의 파고를 분단국가 체제로서는 이겨낼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 또한 우리 사회와 역사 그리고 개개인의 정신 속에 들어앉아 있는 미국의 허상을 벗겨 줄 수 있는 책이다.

그 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사계절
7500원

도종환 지음

도종환 특유의 맑고 투명한 감수성과 서정적 문체로 삶에 대한 깊이있는 사색과 성찰을 하게 하는 에세이집. 여유없이 앞만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조용히 돌아볼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책이다.

작가는 자신의 시에서 '나는 지금 어떤 나무인가'를 묻는다. 날개를 접고 쉴 곳을 찾던 새 한 마리 날아와 편안히 쉬다 갈 수 있다면 잠시 그런 자리를 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족한 그런 나무이여야 한다고 한다. 이밖에 '꽃은 소리없이 핀다' '벼랑끝에서도 희망은 있다' '사랑하면 보인다' '나는 지금 어떤 나무일까' 등의 주제로 그의 글들이 펼쳐진다.

공연

'지하철 1호선 98'

작년 12월 3일부터 올려져온 록뮤지컬 '지하철 1호선 98'이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공연에 들어간다. 볼커 루딕의 'LINE-1MUSIKAL'을 원작으로 김민기의 번안, 연출, 음악으로 선보이는 이 작품은 평일은 7시30분, 토요일은 4시, 7시30분, 일요일은 3시, 7시에 선보여진다. 장소는 학전 그린 공연장이다.

지금까지 750회 공연 12만명이 관람한 이 작품은 해마다 고치며 올려진 5년의 장기공연 작품이다. 5년 공연동안 밴드리더로 있는 박진완을 비롯한 5인조 록밴드 '무임승차'의 강렬한 연주를 바탕으로 설경구, 서지영등 10명의 배우가 보여주는 재미있으면서도 진지한 감동이 흐르는 공연이다. 게다가 2막 10장의 구성에서 선녀를 제외한 9명의 배우가 보여주는 역할은 1인 8~9역이어 장마다 끊임없는 배역전환은 이 공연의 묘미이기도 하다.

인터넷 따라잡기

지난 회에 이어 검색 엔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네티즌이라면 야후(Yahoo:http://www.yahoo.com)을 모르는 사용자는 없을 것이다. 야후는 웹 사용자에겐 약방의 감초와 같은 존재다. 사실 야후만큼 극단적인 두 얼굴을 가진 사이트도 없다. 가장 적은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검색 엔진이면서 또 양질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검색 엔진이로 꼽히기 때문이다. 데이터가 적은 이유는 사람의 손으로 모든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류하기 때문이다. Yahoo의 특징으는 14개의 주제별로 계층적으로 사이트들을 잘 정리해 놓고 있다. 그리고 주제별 하위 분류에서 검색어를 이용한 검색의 가능, AND와 OR연산자 사용 가능, 주제별 검색과 검색어를 이용한 검색을 모두 지원한다. Yahoo는 주제별 검색 엔진으로 손꼽힌다 다음 회에는 대표적인 단어별 검색 엔진인 Altavista의 특징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컴퓨터 동아리 〈돌컴〉

우리말 살려쓰기

빛깔 ← 색깔, 칼라(color)

우리말로 빛깔을 대면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갖가지로 빛깔 말을 댈 수 있단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우리 빛깔 말들을 드물게 쓴다. 더불어 '하양'이란 말보다 '화이트'를 즐겨 쓰고 '파랑'보다 '블루'를 즐겨 쓰듯 가장 바탕이 되는 우리 빛깔 말들마저도 바깥말로 써야 더 나아보인다며 즐겨 쓴다.

우리말을 조금만 더 생각하거나 공부하면 우리 언저리 빛깔을 댈 때, 누구보다도 아름답거나 톡톡 튀도록 쓸 수도 있으니, '초록' 빛깔을 댈 때도 풀빛, 개구리빛, 파래빛, 새싹빛, 솔빛 처럼 우리 언저리 사물 이름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말 연구회에서는 올봄에 동아리방을 '병아리빛'으로 다시 칠하기로 했다.

최종규
〈서양·네덜란드 2〉

서울

구분/요일	아침	점심	저녁
월(23일)	육개장 1,500원	콩나물국밥 1,400원	참치김치찌게 1,400원
화(24일)	대구매운탕 1,400원	햄옥수수볶음밥 1,300원	사골우거지국밥 1,400원
수(25일)	소고기무우국 1,000원	탕수육덮밥 1,500원	오징어볶음덮밥 1,300원
목(26일)	설렁탕 1,500원	하이라이스 1,300원	잡채밥 1,500원
금(27일)	버섯김치찌게 1,400원	미네르바정식 1,600원	콩나물비빔밥 1,200원

용인

구분/요일	초,중식	석식	별식
월(23일)	*미역국 #닭은 장국	*달래두부된장국 #사리곰탕	*잡채덮밥 #김밥
화(24일)	*무채어묵국 #실파계란국	*북어달걀국 #왕산정식	*오징어살커틀릿 #모듬초밥
수(25일)	*유부된장국 두부다시마국	*햄김치찌게 #갈비탕	*참치김치덮밥 #김초밥
목(26일)	*김치수제비국 #근대된장국	*무다시마국 #크림스프	*햄계란볶음밥 #모듬초밥
금(27일)	*우거지된장국 #감자국	*쇠고기무국 #야채라인스프	*하이라이스 #김밥

* - 후생관 # - 어문관

포스트 모더니즘의 폐해

근원이라는 태줄마저 끊어버린 해체주의

정치의식, 사회비판 세력의 붕괴…인간의 붕괴 초래

문화제국주의는 있다

문화제국주의의 실체

문화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이론

①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역사적 발생맥락

② 포스트 모더니즘의 폐해

③ 문화연구 비판

IMF시대와 문화제국주의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난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서구사회에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것이 한국에 어떤 모습으로 상륙했는지를 살펴봤다.

이제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이 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유하고 있는 '해체'와 '붕괴'라는 2가지 무기는 이 사회가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역사발전에 대한 확신과 의지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

반격이 필요하다. 반격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폐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야한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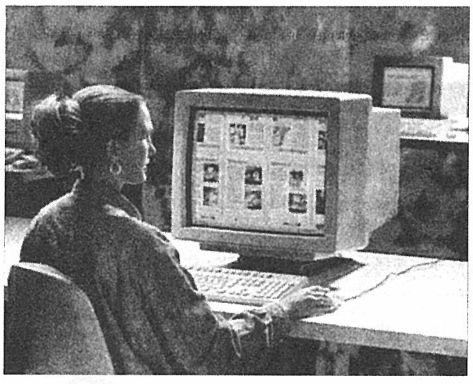
Ⅰ. 90년대를 통과하는 홍역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90년대 초반의 열광은 불과 한 연대를 넘기지 못하고 말았다. 90년대 후반 그러니까 지난 1~2년 전부터 우리 학계와 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반대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서구 근대에 대한 서구 자신의 자기비판의 한 양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것이 제기한 근대적 이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하버마스의 입장처럼, 미완의 근대적 기획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소중한 문제제기라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한국 사회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열광과 그에 따르는 부정적 결과들은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것이 아닐 수 없다. 90년대 초반 한국을 방문한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이 '창작과 비평'과의 인터뷰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열광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정치적이라고 말한 것처럼, 한국의 사회상황은 문민정부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으로 집중된 문제가 사회중심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인데 한국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의미에서의 '정치'가 해체되었음을 표방하고 나섰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라고 하는 거대하고 단일한 '중심'이 세계적으로 몰아쳐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더니즘 또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한국적 이해는 마치 세계가 이제 전면적인 '중심'의 해체시대에 도달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내세움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계화의 앞잡이 역할을 하게된 셈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한국사회의 이상한(?) 열광은 90년대 문민정부의 등장을 통해 상징되는 바와 같이 40여년간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정치체제를 해체시키는 거대한 역사 전개가, 마치 기차가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릴 때 그 주변의 것들이 그 속으로 빨려드는 것과 같이, 여타의 '해체'붐을 동반시켰던 것이 아닐까 하고 여겨 본다. 어느 시대에서나 역사의 어떤 필연적이고 당위적인 흐름이 오랜 시간에 걸쳐 과도하게 억제될 경우 그것은 사회내부에서 점차로 엄청난 밀도를 이루며 팽창하게 되고 급기야 그 역사의 흐름이 기존 사회의 균열을 비집고 터져나오게 될 때 그것의 터져나오는 폭발적 힘은 누적된 억압의 크기만큼 강하게 된다. 그럴 경우 한 시대에 터져나오는 역사의 흐름은 주변의 것들을 자신의 속도 속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예컨대 70~80년대 민주와 독재의 대립시기에 민중문화 또는 리얼리즘문화의 폭발적인 힘은 그 자신의 흐름만을 밀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지식인 문화 또는 모더니즘 문화를 추동하여 자신의 전개방향과 속도 속으로 더불어 끌어들이는 것이다. 한마디로 90년대 해체의 담론은 한국사회의 억압구조의 해체에 대한 하나의 커다란 힘에 이끌려진 것들이라고 필자는 보는 것이다.



컴퓨터는 시간,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으며 무수히 많은 가상, 가짜, 복제물의 존재를 양산 시킨다. 그리고 이는 곧 근원의 실종을 초래한다.

Ⅱ. 정치의식의 붕괴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져온 가장 큰 부정적 결과는 정치의식의 붕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비판적 지성으로서의 대학생의 정치의식의 붕괴는 치명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단순히 대학생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비판하거나 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먼저는 대학생에게서 현란한 학문적 수사를 제외하고 나면 그 어떤 지성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열광에도 불구하고 서구 근대에 대한 진지하고 본질적이며 충분한 이해는 결여되기 일쑤이다.

아주 국한시켜서 말한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서구 세계가 자신들의 실패한 근대화에 대한 자기부정의 한 과격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송두율교수가 몇 년 전에 지적하였듯이,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서구인과 동일시하는 시각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어서 서구인들의 시각과 주장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여 따르는 것이었다. 근대화 초기에 이미 '근대화=서구화'라는 서구추종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인데, 그동안 이어져 온 서구추종적 근대화에 대한 아무런 자기 반성도 없이 이제는 서구인들이 서구적 근대 기획이 실패했다고 부정하자 이를 또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근대화의 출발도 서구인의 논리와 시각을 따라서 하고 근대화에 대한 부정도, 서구인들이 부정하기 전에는 어떤 회의나 의심이 전혀 없다가, 서구인들이 부정함으로써 비로소 부정하게 되는 식의 인간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따른 정치의식의 붕괴는 냉소주의에 바탕한 극단적 상대주의의 사회적 확산이라고 볼 수 있다. 흔히 신세대 의식의 한 현상으로 지목되는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이다'는 식의 극단적 상대주의는 '90년대는 90년대고 80년대는 80년대다'는 식의 편리한 발상을 낳는다. 이같은 단절은 따지고 보면 철저한 자기편리주의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90년대는 80년대의 반독재 민주화의 실천과 희생 그리고 그 성과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발생하지도 않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문화적으로도 80년대 민족·민중문화의 성과 없이 90년대 문화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90년대 사회의 과제는 80년대의 그것과는 엄연히 다른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 역시 시간적 총체성과 연속성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전지구화에 대응하는 어떤 민족문화의 가능성도 배제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치의식의 붕괴는 문화적 주체성의 상실을 더욱 부추기고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미국식 상업문화 즉 헐리우드 문화에 완전히 노예로 전락하는 좀비(Zombi)적 인간을 불가피하게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Ⅲ. '인간'이라는 위엄의 붕괴

정치의식의 붕괴와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판세력의 붕괴, 비판적 지성의 해체도 지극히 심각한 폐해이지만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니는 또는 지닐 수 있는 위엄의 상실에 대한 것이다.

90년대 초반 공지영이 자기 소설에 대한 제목으로 붙인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초토화되고 인간이 비루화(鄙陋化) 되는 현실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남긴 커다란 사회적 상처가 아닐 수 없다. 디지털기술에 힘입은 첨단 정보통신문명의 도래는 가상현실의 확산을 비롯해서 비이성적이고 반사회적인 생활문화를 확대하게 되며 이것은 필연적이거나 정당한 현상이라는 주장을 내놓는다.

여기에는 데리다(J. Derrida)의 '차연'의 논리와 리오타르(J.F.Lyotard)의 '패럴로지'개념이 핵심적으로 제기된다. 데리다는 이성주의에 바탕한 언술와 담론이 권력을 창출한다고 보고 이성중심적인 언어의 해체를 통해 권력의 해체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차연'의 논리를 주장하였는데 '차연'이란, 어떤 진리나 가치, 인식을 내포하고 있고 항상 보편성의 획득을 향해 스스로를 지향시키는(니체적 개념에 의하면 이를 권력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모든 언술에 대해 우리가 의미론적인 '차이'를 부과하여 그 언술을 '비틀어버림'으로써 그 언술의 '이해'와 '공유'의 가능성을 영원히 '연기'시키는 것이다. 그렇게하여 세계의 모든 권력적 담론과 이데올로기 등의 '큰 이야기(grand narrative)'를 해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자면 '최불암시리즈'의 경우, 만약 어떤 사람이 사회 풍자의 의도로써 최불암시리즈를 최초로 만들어 냈는데 그것이 2탄, 3탄 등으로 발전하면서 최초의 그것과는 약간씩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그 시리즈가 무수히 많아지면서 최초의 의도나 메시지는 실종 즉 공기 중으로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차연'의 가장 효과적인 예가 될 것이다.

리오타르의 '패럴로지'개념은 이같은 데리다의 '차연'의 논리를 더욱 연장하고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리오타르는 이같은 '차연'이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통신의 발달한 기술에 도움받아 일상화되고 보편화된다는 것이다. 즉 컴퓨터통신의 도움이 없다면 이 차연은 인간 음성신호가 미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컴퓨터가 있어서 그러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공간으로는 전역적인 차원에서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무수한 차연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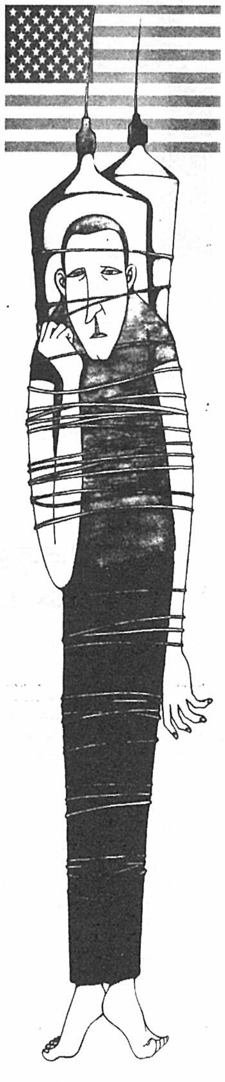
이럴 경우 근원(original)은 실종하고 무수히 많은 가짜, 가상, 복제물만이 존재하게 되며 뿐만아니라 어떤 의도나 메시지와 위엄은 소멸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서 사회에는 더 이상 어떤 공통된 지리나 인식, 가치가 공유되지 못하고 모든 것은 상대성과 다양성의 딱지를 부여 받고 그것의 위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냉소주의라는 독소가 창궐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민족적 가치든 사회적 가치든 가족적 권위든 그 어떤 것도 이 냉소로 가득찬, 오로지 해체주의라는 의식만을 신봉하는 동네의 부랑자청년들같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로부터 짓밟히고 깔아뭉개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마저도 해체주의라는 것만은 해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결국 해체주의는 세상의 모든 종교를 사이비나 이단으로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종교가 되는 것과 같은 셈이다.

Ⅳ. 해체와 붕괴의 시대를 넘어

역사의 현재는 또한 인간의 운명은, 인간에게 인간으로부터의 단절과 사회로부터의 단절을 허용하지 않았다.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사회와 관계의 질서를 해체하는 것은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오만이 된다. 적어도 민족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세계 질서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 당장의 민족적 생존과 깊이 연관된 오늘날 세계화의 현실에서 해체는 곧 사회의 민족의 그리고 인간의 죽음일 수밖에 없다.

송주성
〈'포스터모더니즘은 없다' 저자〉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통일 문제 연구회

통일로 가는 기관사들

사람들이 흔히 우리 동아리를 보고 "요즘 통일문제에 대해 연구 많이 하느냐"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많이들 묻곤한다. 일반적으로 "통일"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추상적이고 또 너무 정치적이라서 흔히들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부르면서도 일상적인 화제는 아닌 것이 사실이다.

통일문제연구회(이하 통문)는 80년 정식 동아리로 등록되었다. 통문은 그 이름에서 풍기듯이 통일에 대해 토론하고 통일된 이후의 사회까지 생각하는 모임이다. 사실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이 무색하리만큼 우리는 원치 않았던 6.25를 통해 서로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고 아직도 그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이제 분단 1세대들은 거의 사라져가고 특히 전쟁을 겪지 않았던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이 없는 듯 하다. 문익환 목사님의 말씀하셨듯이 통일은 남.북한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였다가 나누어진 남.북을 원래 상태로 만드는 것일 뿐이다. 우리 동아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어떤 땅덩이의 합쳐짐도 이데올로기의 합쳐짐도 아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통일은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고 억압당하는 남,북한 사람 모두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런 통일인 것이다.

통일이라는 주제탓에 사람들이 통문을 다 심각하고 재미없는 동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오산이다(사실 학관 4층의 통문방은 통문인들뿐아니라 다른 동아리 사람들로 늘 북적거리고 화기 애애하다) 흔히 생각하는 동아리에서의 사람냄새... 통일에 대한 열정과 사람과 사람과의 끈끈함 이 두가지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통일문제연구회이다.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구? 통일은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일이니까!

김지영
〈사범·불교 3〉

신학철(민중화가)씨의 작품 '모내기' 이적표현물 판결

"지금은 나치시대"

법조계와 정치권력에 저당 잡힌 표현의 자유

지난 18일 대법원이 신학철씨의 '모내기'라는 미술작품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신씨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은 김대중 대통령이 영화의 완전등급제 실시를 주장하는 등 문화관련 분야에 대해 개혁적 정책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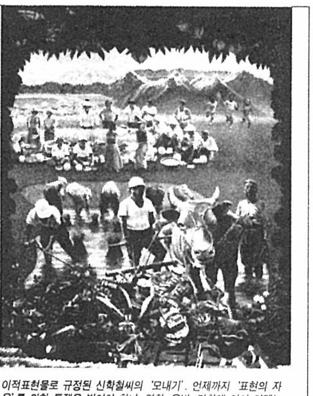
'모내기'는 캔버스에 유화물감을 이용하여 그린 작품으로 상반부는 백두산을 배경으로 농민들이 추수후 행복한 모습을 짓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을 의미한다. 작품 하반부는 농민들이 삽으로 분단을 상징하는 철조망을 드러내고 있고 소를 몰아 외세를 상징하는 코카콜라, 양담배, 일본 사무라이, 일본기생, 군사독재정권을 상징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미군을 상징하는 핵무기, 탱크 등을 바다로 밀어 버리는 장면을 그리고 있으며 이는 남한을 의미한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의 모습에 대해 통일에 저해되는 요소가 전혀 없이 전체적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광경으로 그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남한의 모습은 미·일 제국주의와 독재권력, 매판자본 등 통일에 저해되는 세력들이 가득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술계는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처사라고 일축한다. 신학철씨가 고문으로 있는 민족미술협의회(민미협) 사무처장 윤용국(36) 씨를 만나 그들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대법원이 신학철씨의 '모내기'를 이적표현물로 규정했는데.

그들은 '모내기'가 북한을 찬양하고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적화통일을 하려는 의도를 담고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해석이다. 그림은 통일의 주체인 우리 민족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때묻지 않은 농촌공동체 정서를 통해 삶의 원형을 제시하여 우리의 힘으로 민족통일을 이루자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의 작품이다. 이는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일 뿐 '이적'이 아니다.

미술작품마저 이적표현물로 규정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나치시대에 퇴폐미술로 취급받으며 탄압당했던 작품들이 후대에는 명작들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우리 현실은 나치시대와 다르지 않다. 정치권력에 복무하는 '곰팡내'나는 법조계의 물리적 탄압이 끊이지 않는 한 진정한 미술문화는 꽃필 수 없다.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신학철씨의 '모내기'. 언제까지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하나. 영화, 음반, 만화에 이어 이제는 미술 작품까지 규제의 틀에서 신음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생각인가.

판결직후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신학철씨의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창작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모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시켜 나갈 것이다. 그런 입장을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가며 창작표현의 자유를 획득하려는 움직임을 사회 전반의 파장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

김겸신 기자

3·13 특별사면을 다시본다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힌 양심수

만기 가까운 74명 석방, YS보다 더 적어 실망

한겨레 21

3.13 특별사면은 보수세력의 수구적인 반발을 극복하지 못한 채 실망스런 수준으로 끝나고 말았다. 아직도 감옥에는 404명의 양심수가 갇혀있다.

지난 3월 13일(금) 단행된 양심수 석방이 예상밖으로 기대에 훨씬 못미쳐 '빈수레가 소리만 요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화합'과 '민주재도약 조치'라는 취지나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주발전에 동참할 것'을 바라는 대통령 취임 경축 특별사면의 뜻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평가다.

먼저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무려 552만여명이 특사의 각종 혜택을 받아 '건국이래 최대'라고 불렸으나, 정작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 시국공안사범, 즉 양심수의 석방은 전체 양심수 478명(98년 3월 현재)의 15%에 불과한 74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형선고실효 53명, 감형 16명, 복권 711명, 사면 및 복권 519 명 등 전체사면자를 모두 합쳐도 1,37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김영삼 정권 출범 때 석방자 144명(전제 양심수의 28%)의 절반 수준이고, 전체사면자 5,823명에도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노태우 정권 출범 때의 1,731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장기수 석방은 40년 이상 장기수감중인 세계 최장기수 우용각(70)씨를 포함 20년에서 길게는 40년까지 수감중인 23명의 장기수중에 골수암으로 투병중인 신인영(68)씨와 70세 이상 고령자 5명 등 6명만이 석방됐다. 고령의 초장기수에 대한 제외조치는 비인도적인 처사로 국내외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양심수로 불리던 박노해, 백태웅씨와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세계 30대 양심수로 정한바 있는 김성만씨 등도 사면대상에서 빠졌다.

그리고 74명의 석방자 중 48명이 형기를 75% 이상 넘긴 사람들이고, 94% 이상이 16명, 만기를 나흘 앞두고 석방된 사람도 2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머릿수 채우기'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마저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평가다. 만기를 9일 앞두고도 못나온 박화국씨, 97%의 형기를 채우고도 사면에서 제외된 안윤정씨 등 형기의 2/3를 넘어서도 풀려나지 못한 양심수가 50여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임기란 상임의장은 "건국이래 최대라는 이번 사면은 양심수와 그 가족,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국민의 정부라고 김대중 정부의 개혁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양심수와 그 가족, 국민들의 양심수 석방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체제전복세력과 전향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양심수를 사면에서 제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역대 독재정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상투적으로 써온 냉전공안논리를 김대통령도 그대로 되풀이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발전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사회단체에서 이번 사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40년 이상 복역한 우용각씨 등 대부분의 초장기수들과 양심수들이 전향서(반성문)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석방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민가협측은 "헌법상 기본권이며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기도 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라며 비난했다. 또한 전두환, 노태우 두전직 대통령은 2년만에 풀려났으나 그들에 의해 갇힌 5·6공 장기수들은 대부분 제외됐으며, 한총련 관련 대학생들도 대부분 제외됐다. 임기란 의장은 "전·노는 나왔는데, 그들에 의해 감옥에 간 피해자들은 석방이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며 이번 사면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한총련 관련 대학생의 제외에 대해서는 "한총련을 각 사회단체로부터 고립화시키고 학생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3·13 특별사면은 정권교체 이후 김대중 정권의 개혁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으로 인식되었으나, 결국 보수세력의 수구적인 반발을 극복하지 못한 채 대선 공약마저 저버린 실망스런 수준이었고, 이로 인해 김정권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지연 기자

지난 3월 20일(금)은 류재을(조선대·행정 96) 열사 사망 1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류재을 열사는 작년 조선대 개강투쟁선포식 집회에서 대선자금공개와 김영삼 퇴진을 외치다 경찰의 강경집압에 의해 사망했다. 집권 5년간 70명에 가까운 열사를 만들어냈고, 우리 경제를 파탄낸 김영삼에 대한 사법처리의 기운을 모아야 할 때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총련 개강투쟁선포식 집회에서 6기 한총련 임시의장 손준혁(영남대 총학생회장)군이 류열사 분향소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사회부

정리해고 요건 '있으나 마나'

법제화 이후 현장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정리해고 법제화 이후 회사측의 불법노동행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발표에 따르면, 3월 18일 현재까지 '부당노동행위 고발센터'에 접수된 불법노동행위는 총 395개 사업장에서 55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행위의 주요 내용은 임금체불이 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당해고 146건, 단체협약 위반 114건, 임금삭감 82건, 부당전직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리해고 도입시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위협과 강요에 따른 정리해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근로기준법상의 요건과 절차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 대기발령과 배치전환을 통한 사직 강요 △상여금, 퇴직금 등 임금체불 위협을 통한 사직 강요 △ 계약직 전환을 통한 사실상의 해고 △ 일괄사표 강요 후 선별 수리 △ 인수합병시 재입사 형식으로 선별해고하는 방식 등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은 "기업주들에게 해고의 칼을 쥐어준 대신, 무차별적 해고를 제지할 힘을 노동자에게서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라며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가 해고 남용을 막기에는 너무 무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발표에 따르면, 189개 사업장의 87,947명 노동자가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으며, 그 체불액수는 모두 16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임금을 삭감당하면서도 '정리해고' 협박 때문에 순순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통한 노조활동 무력화 △ 노조가입 방해 및 노조탈퇴강요 △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중단 △ 노조간부징계 및 활동방해 △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 역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기업과 자본측의 불법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정부나 여당측의 대응은 지극히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오는 27일 전국 동시다발 노동부앞 집회를 시작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대학 대표자모임 열어 학생운동 혁신논의

지난 3월 18일(수) 서울대에서는 서울지역 19개 대학 총학생회장 및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격을 가진 각학교 대표자들이 모여 '서울지역 총학생회장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연석회의는 학생운동의 혁신과 서울지역 연합체 운동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었으나, 서울지역 40개 대학의 과반수를 넘지 못해 이후 연석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논의를 내실있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했다.

이날 모인 대표자들은 '앞으로 40개 학교 총학생회장 연석회의를 성사시킬 것과 학생운동 혁신과 서울지역 연합체 운동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대표자들이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대해 연합통신과 서울방송은 '연석회의에서 한총련과 결별하고 새로운 연합체를 구성하자는 것'이 결의되었다는 허위보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서울대 총학생회는 "학생운동에 대한 진지한 모색을 학생운동 내부의 세력다툼으로 포장해 학생운동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려는 의도"라며 언론의 허위왜곡보도를 비판했다.

"아직 민주주의는 오지 않았다"

사면 제외된 백태웅씨 약혼녀 만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수감중인 백태웅씨는 사면 전날까지 '나온다' '못나온다' 하면서 언론의 관심을 끌었으나 끝내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본보는 백씨의 약혼녀인 전경희씨를 만나 이번 사면조치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양심수로 불리는 백씨는 89년 박노해씨와 함께 사노맹을 결성, 활동하다 92년에 구속되었다. 편집자

기대를 많이 했을텐데.

김대중씨가 당선되면서 '이제는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고 지난 세달을 꼬박 옥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주위로부터 축하전화도 많이 받았다. 김대중씨가 공약에서도 양심수 사면을 밝혔고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도 했었는데…. 실망했다.

왜 사면에서 빠졌다고 생각하는가.

그이와 박노해씨는 진보와 보수의 상징이자 판단 기준이다. 그들(보수세력)은 두 사람을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민주주의 사회라고 볼 수 없는 기준인 것이다. 석가탄신일이나 8.15에 사면이 한번 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때는 제발 석방됐으면 좋겠다.

이번 사면에 대한 생각은.

양심수 사면은 민주주의의 시금석이다. 김대중은 결국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다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팽이가 멈추면 쓰러지듯이 개혁도 멈추면 실패한다. 김대중은 김영삼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한다.

양심수 사면에 대한 생각은.

일단은 감옥에 있는 모든 양심수가 석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남아있는 한 양심수는 반드시 또 생긴다.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한다.

김겸신 기자

민주노총 정갑득 후보 정리해고 반대

IMF 재협상 등 요구… 메이데이 총파업 제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2기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정갑득(40, 현총련 전 의장)·장운 후보 진영이 '정리해고 반대, 재벌개혁, 경제파탄 책임자 처벌을 위한 5·1 메이데이 총파업투쟁'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후보 진영은 지난 20일(금) 기자회견을 통해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무효화' '재벌개혁' 'IMF 재협상' '부당노동행위 엄단' 등을 정부와 재계에 요구하고, 5월 1일 메이데이(노동절)을 맞아 전국적 총파업을 제안했다.

정갑득 후보 진영이 현재 민주노총 선거운동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총파업 투쟁을 제안한 것은 이미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고용불안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노조전체가 무력화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 시급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제안은 민주노총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에게 공식 제안되어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한국노총에도 공동투쟁을 제안했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을 전개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덧붙여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 제안의 실현을 위해, 오는 3월 31일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메이데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메이데이 총파업투쟁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향후 노사관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지도부를 구성하는 이번 민주노총 선거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민주노총의 향배와 노사정위원회 등의 대정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고 나선 정갑득-장운 후보 진영의 제안에 대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돼 향후 노사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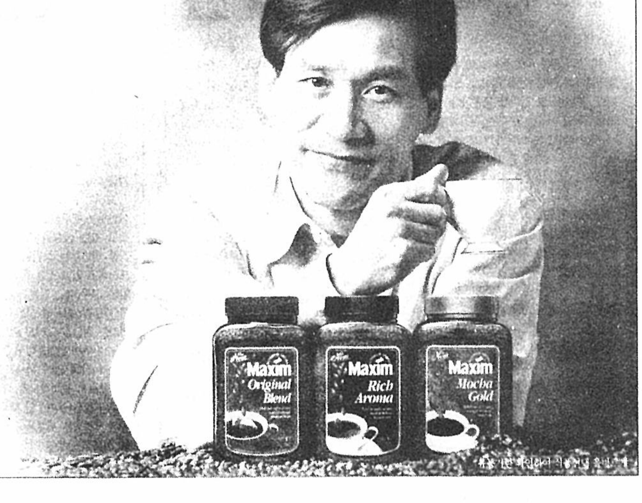
30th Anniversary 생활속의 향기 30년 동서식품 30년

세계로 수출하는-
우리커피 맥심

지금도 외제 커피를 찾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라도 세계로 수출하는 우리 커피 맥심의 우수한 품질을 아시게 된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맥심을 비롯해 동서식품의 커피류 제품들이 97년 한 해만해도 세계곳곳으로 2,700만 달러어치나 수출되어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동서식품이 커피라고는 외제 밖에 없던 시절부터 우리 입맛에 맞는 커피를 만들어 온 지 30년! 이제 맥심은 세계정상급 품질로서 한국의 자존심을 걸고, 세계속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류 품질만이 세계에서 통합니다!

향이 좋아 커피다운 커피-
맥심
동서식품



*http://www.dongsuh.co.kr

IMF와 재협상 3

BIS 8% 기준, 무엇이 문제인가

은행 돈 묶어 연쇄 부도 초래

국제 신용 향상, 재벌 개혁 · 금융권 부실화 방지 우선

BIS(국제결재은행)비율이란, 그냥 일반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기업의 총자본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은행의 BIS란 이 자기자본비율을 그 은행의 신인도를 반영하게끔 세밀하게 다듬은 것에 불과하다. 즉, 그냥 총자본 하면 그 은행의 실상을 잘 알 수 없으니까, 총자본 대신 '위험가중치를 반영한 자산'으로 나눈 것이다.

은행은 주식시장을 통한 자기자금과 고객의 예금을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한다. 이것이 은행의 부채를 형성한다. 은행은 또한 조달한 자금을 기업 및 가계대출, 채권 및 주식투자, 해외 환투기, 고정자산투자 등에 운용한다. 이것이 은행의 총자산을 형성한다. 총자산중에는 위험성이 낮은 자산도 있고 위험성이 높은 자산도 있고 아예 부실화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도 있다.

같은 대출이라도 담보대출은 안전한 자산으로 분류되고, 신용대출은 위험한 자산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BIS비율 산정시는 위험도가 높은 자산일수록 자산으로서 가치가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BIS비율 산정시 은행들이 담보가 적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회수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

BIS 8%는 은행이 국제적으로 신인도가 인정받는 기준비율이다. 예컨데 어떤 은행의 BIS비율이 8% 이상이면 타국의 은행들이 그 은행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8%에 미달하면 신뢰도에 의문을 갖는 기준비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96, 97년 국내 재벌들의 연쇄부도로 인해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화 심화됨에 따라 해외채권은행들이 국내 금융기관들, 특히 종금사의 대출상환능력에 회의가 증폭되면서 만기되는 즉시 대출을 회수해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금융기관의 외채상환을 위한 달러수요가 급증하고, 그동안 경상수지 적자 누증으로 인해 고갈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이를 감당해내지 못함으로써 IMF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이다.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실은 '재벌의 추가적인 부도를 방지'하는데 있는 것이지, 금융기관의 BIS비율을 억지로 맞추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설사 금융기관이 어떻게 어렵게 BIS비율을 맞춘다고 해도 재벌의 연쇄부도로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계속되면 해외 채권은행들이 부실한 국내 금융기관들에게 단지 BIS비율만 믿고 달러를 빌려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벌의 차입경영, 선단경영, 족벌경영을 근절시키는 '재벌개혁'이 국내금융기관들의 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한 '사태해결의 핵심'이다.(물론 만성적인 과잉생산이라는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은 제외하고)

아무튼 IMF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든 국내은행의 BIS비율을 2년 내에 8%로 '맞추라고 어거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어떤 은행이 BIS비율 8%를 못맞추어 신인도를 믿을 수 없거든 시장논리에 따라 돈을 안빌려주거나 위험도를 감안하여 금리를 높여 받으면 되는 것이지, 모든 은행의 BIS비율을 2년내에 8%이상으로 맞추고 못맞추면 인수·합병시키거나 폐쇄시키라는 주장은 간섭이 지나친 것이다. 실제로 일본 지방은행들의 경우 BIS비율이 6%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지 대외채권발행 등 일부 국제업무를 제한할 뿐, 국내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BIS비율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의 인수·합병·폐쇄 등의 주장은 전혀 제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은행이 BIS비율 8%를 맞추든 못맞추든 어떻게 보면 은행 내부의 문제일 수 있는데, 온 국민이 'BIS비율'을 못들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BIS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유는, 작년 연말의 경험을 통해 IMF나 정부가 무리하게 BIS비율 준수를 강요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를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일 것이다. 작년말 은행들은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대적으로 기업여신회수에 나섰고 그로 인해 기업연쇄부도가 사회문제화된 바 있다. 기업들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금리불문'하고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린 바 있다. 그 당시 정부는 기업연쇄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서둘러 은행들의 조기 BIS비율 준수를 강제하지 않고 향후 2년동안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고비를 넘긴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IMF의 재촉으로 그 약속을 번복하고, 지난 2월 26일 은행감독원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통해 BIS비율이 6%에 미달하는 6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조치를, BIS비율 8%에 미달하는 6개 은행에 대해서는 전자보다 한 등급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그 내용은 자산감축, 점포폐쇄, 인원 및 임금감축, 자본금증자, 경영진교체 등 빠른 시일 내에 BIS비율 맞추겠다는 방안을 담은 자구계획서를 4월말까지 제출토록 하고, 만약 의지가 부족하다거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자구계획서의 승인을 안하고, 해당은행의 은행장은 경영개혁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문책하겠다는 상당히 강력한 것이다.

정부가 이같은 밀어붙이기식의 BIS비율 맞추기를 시도할 경우 은행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BIS비율 맞추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은 불문가지이다. 증시불황으로 자본금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의 길이 사실상 막혀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각 은행은 또다시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대출을 회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 자명하다. 그것은 정부가 옆길을 막아놓고 은행을 외길로 내모는 자충수에 다름 아니다.

기업들에게 대출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국에 은행마다 대출회수에 전력할 경우 기업들의 연쇄도산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은행들에게 BIS비율 준수를 강제하면서도 은행의 기업대출상황을 감시함으로써 기업대출 회수를 방지하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은행을 몰고가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음성적으로 대출회수에 전력할 것임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상에서 고찰했듯이, IMF의 국내 금융기관의 BIS비율 8% 조기준수요구는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는 억지주장일 뿐이며, 성격상 누가 억지로 강제할 일도 아니고 각 금융기관이 해외 채권은행들로부터 싼 이자로 달러차입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알아서 추진할 일이다. BIS비율 8%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3%, 5%, 8%등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IMF와의 재협상이 필요하다. 아니, 국내금융기관들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는 억지로 금융기관들의 BIS비율을 맞추려는 우매한 접근보다는, 재벌개혁을 통한 재벌 연쇄부도방지과 이를 통한 국내금융기관들의 추가적인 부실화방지가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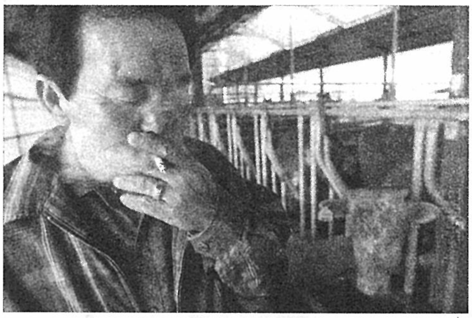
IMF가 진정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원한다면 최근 시들해지고 있는 재벌개혁문제에 대해 IMF가 보다 더 목소리를 낼 것과, IMF의 국내 금융기관의 BIS비율에 대한 요구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태기석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작년말 은행들이 BSI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대적인 기업여신회수에 나서자 곧이어 기업의 연쇄부도 사태가 일어났다. 기업들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금리불문'하고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린 바 있다.
BIS비율은 우리 기준에 맞게 3%, 5%, 8%등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신농정 실패, IMF까지…못 살겠다

기름값 올라 온실 식물 얼어죽어
사료 · 농자재 수입가격 폭등, 빚만 늘어



김영삼 정권의 신농정 실패로 인해 농가 1가구당 빚이 6,000만원에 달하고 수입개방으로 식량자급체계가 무너졌다. 게다가 IMF한파로 농촌사정은 점점 더 피폐화되고 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반해 턱없이 낮은 추곡수매가 인상률, 이마저도 올해는 동결됐다. 농축산물의 수입 개방으로 농축산물의 가격은 폭락했으며,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며 실시한 김영삼의 신농정은 5년동안 농가를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결정적으로 IMF 한파까지 겹쳤다. 나라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하는 농촌이 지금 존폐위기에 놓여있다.

작년 11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발표에 따르면 농가 한 가구당 평균부채가 5,753만원에 이른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이 농사를 지어서는 빚은 커녕 이자조차 갚기 힘든 지경이다. 전농 통계에 의하면 일년 논농사를 지어봐야 우리나라 같은 영세한 농가에서는 일년에 300만원 벌기도 힘들다고 얘기한다. 빚을 얻어 빚을 갚는다. 이러한 심각한 부채문제는 '생산기반설비' 같은 장기적 안목이 아닌 '원예농업이나 특용작물' 같이 눈에 보이는 성과 중심의 단기적 정책인 김영삼 정권의 신농정 정책의 실패로 인한 부채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부는 신농정실패로 인한 농가부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게다가 97년 7월 1일부터 쌀, 조기, 한우를 제외한 99.9%에 달하는 농산물이 수입되어 가격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우리 농촌은 1년내내 정성을 들인 농산물을 수확도 하기전에 밭을 갈아 엎어야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결국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빚더미뿐이다.

엎친데 덮친다고 이러한 상황에서 불어닥친 IMF 한파는 농촌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사료를 수입하는데 환율이 폭등함으로 인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정부에서 적극 권장한 원예, 특작, 축산농가들 대부분이 파산했고, 농자재 가격폭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극도의 소비위축으로 농산물 가격은 폭락했다. 또한 겨울 비닐하우스는 기름값 인상으로 인해 아예 난방을 포기, 작물을 얼어죽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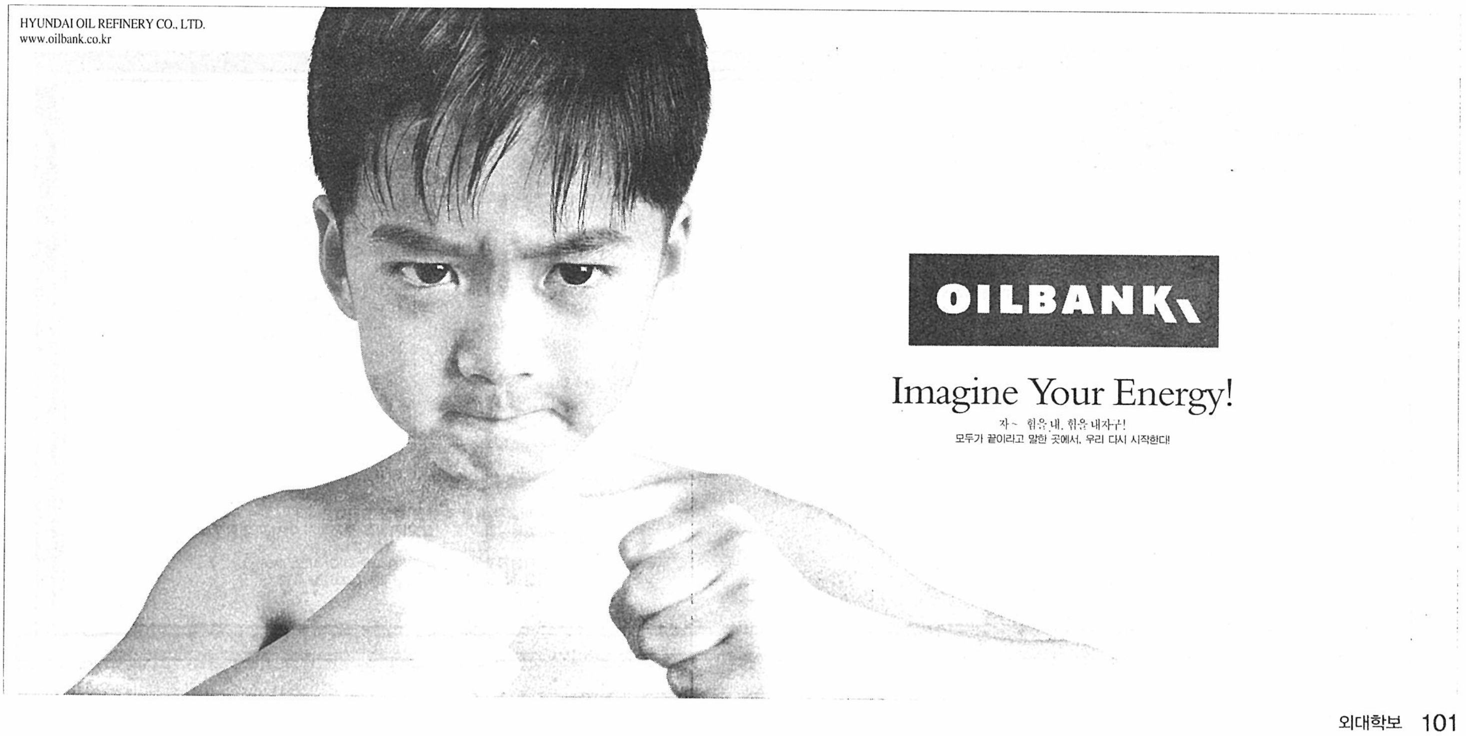
봄에 농협에서 돈을 빌려 가을 추수 때 돈을 갚는 것이 농촌의 구조다. 농사철이 되었지만 금융위기 영향으로 농협에서 신규대출을 해주지 않아, 매년 농협 대출에 의존했던 영농비가 없어 다가오는 봄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에 놓여있다. 또한 영농비 마련은 커녕 그 동안의 빚진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한 농가의 파산은 이 농가의 대출 보증을 해줬던 다른 농가의 파산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인 연대보증에 의한 연쇄도산으로 농촌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정리해고 등으로 실직한 도시의 노동자들이 이번 기회에 농사나 짓자는 생각으로 귀농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의 현실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시만큼이나 심각한 지경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귀농자를 위한 지원이나 교육을 활성화 하겠다는 방책은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정리해고 등을 단편적으로 해결해보겠다는 정부의 기만적인 대응전략일 뿐이다. 이와 관련 강운정 전농 정책부장은 "IMF 시대인 만큼 장기적인 대책으로 재협상과 금융·재벌에 대한 개혁을 하듯이 올바른 농정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던 김영삼 정권의 신농정정책은 결국 '떠나고 싶어도 빚 때문에 떠날 수 없는 농촌'으로 전락시켰다. 따라서 새로 들어선 김대중 정권에 대한 농정대개혁의 기대는 사뭇 크다. 또한 김대중 정권의 농업에 대한 공약과 신임 농림부 장관의 개혁에 대한 의지도 높이 사고 있다. 죽어가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농업개혁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농촌은 정말로 없어지게 된다.

임승희 기자



<글싣는 순서>

1. 학교법인의 지위와 역할
2. 일그러진 동원재단의 역사
3. 재단전횡, 어디서 오는가?
4. 재단다운 재단으로 ①
5. 재단다운 재단으로 ②
6. 재단다운 재단으로 ③

재단 바꾸기, 외대살리기 - ③ 재단전횡, 어디서 오는가?

경고할 뿐 처벌 못하는 사립학교법

재단에 집중된 권한 악용… 직원 · 교수 줄서기 심각

최근 학내에서는 박승준 (재단) 전무이사의 비리가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박승준 퇴진 · 사법처리' 열기가 치솟고 있다. 이러한 박승준의 비리가 발생하게 된 이유 중에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문제도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을 살펴보면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 모든 권한이 학교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법 제5조에는 '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 · 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과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과 '모든 학교는 국가의 공기로서...'라는 조항이 분명하게 명시된 것에서 확인되듯 모든 교육이 공교육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립 · 운영하는 국 · 공립대학의 교육 뿐 아니라 학교법인에 의해 설립 · 운영되는 사립대학의 교육 역시 공교육으로 대해야 한다.

이는 사립대학 교육이 공교육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교육법'에서도 '교육의 제도, 시설, 교과와 방법은 항상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교육을 받는자로 하여금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정의해 놓았듯이 대학운영을 학교법인이 좌지우지하지 말고 교수, 학생, 직원이 자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법인은 이를 위해서 '교육공무원법'에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놓은 것처럼 교수들의 신분안정을 보장해야 하며, 교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 사립학교법 제21조 3항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우리학교 '외대일람' 학교법인 정관을 살펴보면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로 한정짓고 있다.

사립학교법도 전혀 교육경험이 없는 사람 또는 교육경험이 조금 밖에 없는 사람이 '학교를 경영하는' 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우리학교는 1년 이상으로 더 축소를 시켜놓고 있어 우리학교 법인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더욱 축소 재정했다는 의혹을 풍기고 있다.

이러한 법조문으로 인해 교육법상 교육의 근본 목적인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능력과 자질을 소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체를 잊게 할 만큼 대다수의 대학 재단이사에 교육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대거 기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순수한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이 이제는 자본가들의 돈놀음을 하는 곳으로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사립학교법 16조 2항의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로 규정돼 있다. 이는 학교법인의 이해에 맞지 않는 이사장, 이사는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충분히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조항은 단국대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박승준 전무이사 뿐 아니라 다른 학교재단 이사들의 많은 비리를 양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법조문상에서도 학교법인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조항들이 상당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을 민주적으로 개정하지 않는한 우리학교에서는 '제2의 박승준'이 탄생할 수도 있다.

대학부

타학교 재단비리 사례

족벌체제에 재정비리는 비일비재

얼마전 서울대 치대 교수임용비리사건을 시작으로 며칠간 신문지상을 달구었던 대학교수임용비리. 신문에서는 서울대마저 이렇게 비리가 심하다며 나라가 곧 망할 듯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러한 대학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서울대 사건 이후 줄줄이 밝혀졌듯 사립대학의 비리는 훨씬 심하고 그 비리의 대부분은 사립학교의 재단(학교법인)에 의해 자행되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밝혔듯이 사립학교에서는 재단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말경 밝혀진 경산대 교수채용비리의 경우가 그렇다. 재단이사가 임용대상인 교수에게 돈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는 교수뿐 아니라 전임강사 채용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유전교수, 무전강사'라는 말이 과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94년 건대에서는 지금의 우리학교 재단사태와 비슷한 형태의 재단비리가 밝혀졌다. 교육부의 감사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명예이사장의 아내인 김현숙씨가 부이사장직을 맡으면서 학교의 실권을 장악하고 수십억원의 학교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즉 남편인 유승윤씨가 부정입학비리로 구속되자 명예이사장과 부이사장이라는 직급을 급조, 학교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다 학내구성원들의 퇴진요구에 부딪치게 됐다. 우리학교 재단의 박승준이사도 전무이사라는 자리에 10년 넘게 재직했지만 전무이사라는 자리는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자리이다.

사학비리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조선대의 박철웅씨의 경우는 학내 구성원들의 심한 반발로 조선대에서 물러난 후에도 상당한 액수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었으며 더구나 학교에는 그의 추종세력들이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었다.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된 '전 경영진의 부정비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씨일가는 △부정 편 · 입학 기부금 횡령 △재단 소유재산 착복 △재단 수익사업체 불법탈취 등으로 578억원이 넘는 학교돈을 빼돌린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재산압류와 같이 이에 대한 처벌은 없어 법에 큰 구멍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총장 선출과 관련하여 재단과 다른 구성원들이 마찰을 빚었던 곳도 많다. 총장은 재단과는 분리된 대학행정의 총괄자이며 그런면에서 재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임되는 것은 비리의 소지가 있고 학내 민주적 절차는 전혀 무시된다는 인식을 교수를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한양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의 총장이 재단이사장과 혈연관계에 있어 족벌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고 혈연이 아니더라도 모든 대학이 총장을 재단측 인사로 앉혀놓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구조는 재단에 대한 대학의 종속성과 재단의 전횡을 필연적으로 가져온다. 갈등이 가장 심하게 드러났던 곳이 계명대이다. 재단측에서 직선제 폐지선언을 하자 교수협의회와 학생회가 심하게 반발했던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총장선출 문제가 있었던 곳은 연대, 국민대, 이화여대, 항공대 등이 있다.

박윤정 기자

'파벌'이라는 파행적 인적구조를 밝힌다

지난 96년에 완공된 서울배움터의 교수연구동의 방배치를 할때 벌어졌던 희극 하나. 행정부처에서 배정한 방이 한 이사에 의해 즉흥적으로 바뀌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교수와 그렇지 않은 교수들의 방위치를 바꿔버린 것이다. 그가 바로 박승준 이사다. 사소한 일도 이렇게 처리되는데 중대사를 결정할 때는 재단의 '허락' 없이 아무일도 처리할 수 없으리란 것을 추측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교직원은 줄서기를 할 수 밖에 없고 자연히 친재단파 교직원과 그렇지 않은 교직원들 간의 파벌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만약 재단내에 양립하는 세력이 있다면 각 세력별로 또 파벌이 있을 것이다. 비록 특정 파벌에 '몸을 담고' 있지는 않더라도 입바른 소리를 하기는 불가능하다. 덕성여대 한상권 교수 재임용탈락에서 보이듯 재단의 눈밖에 나면 학교에서 쫓겨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얼마전 까지 학교전반을 장악하고 있던 박이사의 경우도 14년간 외대의 실권자로 있으면서 만든 '자기사람'이 상당할 것이다. 이사장측의 분석에 따르면 몇몇 교수들이 박이사를 비호하는 서명운동을 한 것도 교협에서 처음에 이사장의 박이사 강등에 대한 반발을 한 것도 그러한 이유일 것이라고 한다.

재단에서는 어떻게든 교수나 직원을 자기사람으로 만들어 충복으로 삼으려고 하고, 충실함이 검증된 사람에게는 중책이나 보직을 맡기기도 한다. 따라서 많은 교직원들이 재단의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재단이 모든 인적구조를 장악할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교수선임권, 직원임면권이 전적으로 재단의 것이기 때문이다.

박윤정 기자

알쏭달쏭퀴즈

크로니클 알쏭달쏭 퀴즈

북풍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받던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자해를 시도했다. 이 사람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복수응답 가능) ①국민들의 비난에 너무나 괴로워서 ②구속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 ③적당히 죽는 척 해 북풍을 잠재운 후 도망가버릴려고 ④자책감에 진짜 확 죽어버릴려고 (힌트:그는 손가락 한마디 만한 면도칼로 배를 4번 정도 스치고 변기뚜껑을 깨 문밖의 수사관에게 살려달라는 신호를 하는 등의 작태를 저질렀음) 외대인 여러분 정답은 과연 무얼까요.

〈겸〉

'박승준 퇴진'으로 배움터 민주화 열기가 가득한 이 시기. 아직도 박승준을 비호하는 세력이 학교내에 판친다는 소리가 있다는데. 이곳은 비호세력의 본거지 교수회관. 이 앞에 있는 한 대자보 '박승준을 비호하는 교수에게 경고한다. 서양어대 ㅇㅇ....' 이 앞을 지나가던 한 교수. 주위를 둘러보며 이 대자보를 찢으며 왈 "이거 왜이리 더러워"라며 잘 안 보이게 치우는데. 수배 포스터 찢는다고 죄가 없어질까. 크로니클자는 그들에게 묻는다.

〈석1〉

특종을 잡아라. AP 통신을 비롯한 전세계 통신사와 언론사 기자들이 속속 서울로 집결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들이 주목하는 곳은 대선자금 남은 돈으로 지은 상도동 자택이라. 크로니클자 알아본 이유인즉, 한총련 김영삼 체포 결사대를 취재하기 위함이라는데. 어쩌다가 김대통령 잡는다는 소식이 전세계적인 특종이 되었는지. 김영삼씨 전세계적인 웃음거리되기 전에 자수하시죠.

〈석2〉

특종을 잡아라

비둘기칠판

이문벌

□ 알립니다

· 동구권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가정을 모집합니다.
참가자격 - 외대, 경희대 근처에 사시는 분 우대
- 가족 중 영어구사능력이있는 분
(능수능란할 필요 없음)
홈스테이 비용- 한달에 70-80 만원(조식/석식 포함)
연락처- 인터넷서스 코리아
전화) 511-7284/5 팩스) 511-7286
〈인터넷서스 코리아〉

· 98년 중흥외대의 신화를 함께 창조해갈 9대 러시아어과 학생회 유재혁 · 김재호 학생회장님과 자랑스런 집행부 후배들을 믿습니다.
〈'97년 노어과 학생회장 · '95년 노어과 총무부장〉

□ 추모

· 작년 대선자금공개와 김영삼정권 퇴진을 외치다 경찰의 탄압에 돌아가신 류재을(조선대 행정 96)열사의 1주기를 추모합니다. 열사의 뜻 이어받아 98년도에 반드시 김영삼을 사법처리 해야겠습니다.
〈같은 행정학과 학우가〉

· 뜨거운 가슴과 따뜻한 품성을 지닌 사랑하는 인묵이 형의 무죄석방을기원합니다.
김영삼 사법처리/ 박승준 퇴진 투쟁!!!
〈황사모〉

□ 찾습니다

· 3월 12일 대학원열람실에서 검은색하운드가방 분실.
후사하겠음.
문의) 015-8517-4474

· 3월 20일 그 건물에서 검정지갑분실.
목숨처럼 소중한 겁니다.
문의) 012-864-7924

왕산골

□ 알립니다

· 진로 집단 프로그램, 적성검사,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 잠재된 능력, 취업, 진로문제등을 상담하고요,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해 알려줍니다.
무료이구요, 학생회관 2층에 있습니다.
〈학생생활상담연구소〉

□ 축하합니다

· 포어과 96학번 남다래 학우의 24일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스물두울의 네 모습 너무 아름답다.
〈너의 단짝이〉

· 마인어과 98학번 김종현(16일), 송창용(19일), 김영혜(21일), 조영상(23일), 이윤경(29일)등의 새봄에 태어남을 축하합니다.
〈마인어과〉

· 동대 율동패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나의 몸짓, 당신의 몸짓 그리고 우리의 몸짓
수요일(3월25일)까지 동대실로 와주세요.
〈동대 율동패〉

□ 찾습니다

· 갈색 반지갑을 찾습니다. 3월 13일 교양관 201호에서 분실했구요, 카드와 신분증만 돌려주세요.
후한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문의) 015-8377-7121, 3453-0940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0-4112

사범대 학생정기총회 열려

평가인정제, 외대발전 운동 등 논의돼

오는 23일(월) 대학원 소극장에서 서울배움터 사범대 학생정기총회가 열린다.

'교육과 함께 만나는 나, 우리 그리고 참세상'이란 기조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평가인정제 △외대발전운동 2가지 안건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각 대학이 평가인정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재 실사단이 전국사범대평가에 들어갔고 우리학교에도 곧 다녀갈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행사에는 우리학교 사범대를 3월에 자체평가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

외대발전운동과 관련 우리학교 부속 중·고등학교 설립, 교육 실습실, 자료실 개설, 교육과정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사범대 단대장 김진원(영교 3)군은 "올바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육을 받아 사회에 나가서도 올바른 관점을 갖고 행동하는 영교인이 되자"라며 힘찬 어조로 말했다.

서양어대 학생대표자회의 개최

세미나실 마련 등 단대 요구안 논의

서울배움터 서양어대학생대표자회의가 오는 24일(화) 오후 6시 교수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과학생회 강화와 서대로의 통큰단결'이란 기조로 열리는 이번 서학대회는 △1년 사업계획 △각과 사업계획 △단대 요구안 △외대발전운동 △대외정세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단대요구안에는 단대세미나실 마련, 외국에 있는 대학과 활발한 교수로서 교환학생 확충 등이 있다. 대외정세 부분은 한총련, 양심수, 고용안정, IMF와 관련 반미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학내 복지와 과학생회 강화, 일꾼교양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서양어대학 학생회장 차재훈(포루투갈 4)군은 "이번 행사는 예전과 달리 거품을빼고 서대현실에 맞는 안건을 갖고 논의할 것이다"며 "총노선과 사업계획을 정하고 공고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인, 일부 단대 해오름식 열려

용인 총학생회장, 한총련의장 출마상황 밝혀

용인배움터 경상대 해오름식이 지난 19일(목) 후복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새로운 청년에서 바로서는 청년 공동체"라는 기조를 가지고 열린 이번 행사는 △PC실문제 △계열제 전면폐지 △공간배치문제 △안기부 해체 투쟁 △북녘동포돕기 △총학생회장 한총련 의장 출마 등을 논의했다.

한편 19일(목) 용인배움터 인문대 해오름식이 인문·경상대 건물 1층로비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자치권 수호 △학자결의 △고희철총학생회장의 한총련의장 출마상황 △3월 용인배움터 흐름 교양 △100대 요구안 △학부제 폐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학생회는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하였다.

이날 인문대 학생회장 정승환(인문·사학 4)군은 "왕산의 주인답게 당당하게 행동합시다"라고 힘차게 말했다.

서울 인도어과 정기총회 개최

회칙인준, 1년 사업계획보고 등 논의

서울배움터 인도어과 정기총회가 오는 23일(월) 오후 5시 대학원 104호에서 열렸다.

'서로 다름이 공존하는 곳'이란 기조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년 사업계획보고 △작년 학생회평가 △회칙인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인준받게 될 회칙에는 과학생회 후보자격을 3학기 이상 등록자로 정하는 것이 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권영순(인도어과 2)군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희망을 만들어가는 모두의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26일(목) 서울배움터 도서관 앞에는 인도어과 과회장 선거가 권영순(2)군 단독 출마로 열린다.

비상전체학생대표자회의

지난 16일(월) 인문과학관 대강당에서는 재단사태와 관련 '비상전체학생대표자대회'가 있었다. 갑작스레 소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 '8문 8답'이라는 식순에서 92년도 학자투쟁을 했던 대학원의 선배와 98 새내기들의 적극적인 발언이 있기도 했다.

임승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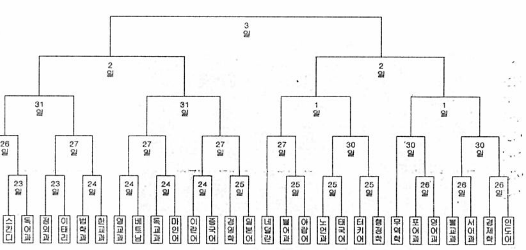
서울, 모의 월드컵 개최

오는 23일(월)부터 다음달 3일(금)까지 12일동안 제 17회 모의 월드컵이 서울배움터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우리학교 축구부가 주최한 이번 모의 월드컵에는 29개 각과가 출전해 열띤 경쟁을 벌인다.

23일 본 경기가 들어가기전 오후 1시 교직원 대 총학의 경기가 1시간동안 열리고 오후 2시 개막식과 총장의 축사, 시축이 있었다. 이날 축구부 회장 신세민(법학 3)군은 "축구는 공하나로 많은 사람이 뭉칠 수 있는 운동이다"며 "각과에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연습하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아래는 제17회 모의 월드컵 대진표(3.23~4.3)이다.

제17회 모의 월드컵 대진표 (3. 23 ~ 4. 3)



특별사면된 박성동(30대 서울 총학생회장)군을 만나

이 사람

"재단투쟁, 함께해야 이긴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에 기념하여 이뤄진 특별사면조치로 인해 만기 18일을 남겨놓고 출소한 사람이 있다.

96년 연세대 사건으로 이적표현물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던 서울배움터 30대 총학생회장 박성동(상대·경영 92)군이다.

"감옥환경은 좋았지만, 실천의 군단에 있지 못해서 답답했고, 함께하지못한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었다. 동료 뿐만아니라 7300학우들 모두가 사무치게 보고 싶었다"는 박군은 "현재 총학생회장님을 부르는 소리에 솔깃하기도하는 등 아직 사회 생활이 자연스럽지 않다"며 밝게 웃어보였다.

한편 박성동 30대 총학생회장은 지난 96년도에 현재와 비슷한 재단투쟁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에 관하여 "등록금 부당인상에 반대하면서 등록금의 합리적인 책정과 집행감시, 재단전입금 확보 등을 주장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는 '교육재정확보'에 대한 한총련중심의 연대투쟁이 활발했지만, 지금의 재단관련 투쟁은 각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연대의 어려움이 있음을 덧붙였다.

"박승준 퇴진과 외대발전 쟁취 측면의 학자운동에 학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 같아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박군은 '지혜와 열정의 통일이 승리의 별자리를 점지해주는 덕목'이라는 김남주씨의 시를 인용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현명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학자운동의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영생활에 대해서 박군은 "감옥안에서 장기수 분들을 만나며 많이 깨게 되었다"며 30~40년 동안을 미전향 장기수로 남을 수 있는 그들의 사상의 힘에 한때나마 힘들어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고백했다.

"과거 어느 정권보다 민주적일 것으로 기대했던 김대중 정권에 대해 이번 양심수 관련 사면조치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박군은 끝으로 "지금 진행중인 투쟁에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그 주체의 한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다.

임승희 기자

10대 언론협의회 의장 선거

의장 - 허윤숙, 부의장 - 박일천 단독 출마

10대 언론협의회는 오는 26일(금) 양 배움터에서 의장 선거를 가진다.

오전 9시부터 오후3시(용인),5시(서울)까지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후보는 의장에 허윤숙(동양·아랍 4) 외대학보 사회부장, 부의장에 박일천(경상·무역 3) 전 외대학보 대학차장이 단독입후보했다. 후보들은 98년 사업기조로 '1백 언론일꾼들의 올곧은 언론관정립을 통해 단결력을 높여내고 언론자주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응을 통해 언론운동의 정형을 창출해 내자'를 내걸었다. 주요공약은 △'언론자주권 쟁취를 위한 연구소위' 구성 △언협공동기자단 강화 △언협내 소모인 통한 유대강화이다. 언협 의장후보인 허윤숙양은 "10대째를 맞는 언협은 기존의 사업체계를 이어받음과 동시에 그 내용을 풍부히 함으로써 진정한 대중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 복지 장학금 추가 신청 접수

서울배움터 학생복지위원회(학복위)는 오는 24일(화)까지 복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1차 마감이 끝난 18일(수) 71명이 신청서를 냈다. 안병만 총장과의 합의에 의해 매학기 식당기금으로 학복위측에서 일정양의 돈을 적립하였는데 올해 총장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식당기금 적립기간이 끝나게 되었다. 그래서 원래 복지장학금 1950만원과 학생식당 적립금 1650만원을 더해 3600만원으로 늘어나 신청자를 더 받기로 했다.

알림 바로잡습니다

본보 706호 11면에 보도됐던 '고 한지윤군'을 '고 한지윤양'으로 바로잡습니다.

—외대학보—

주간일정표

	23일(월)	24일(화)	25일(수)	26일(목)	27일(금)
서울	● 인도어과 정기총회 ● 사범대학생 정기총회	● 서양어대 학생대표자회의	● 동양어대 학생대표자회의	● 동아리대표자회의 ● 아랍어과 정기총회 ● 인도어과 학생회장 선거	● 스칸디나비어과 정기총회 ● 영어과, 이란어과, 네덜란드어과 모꼬지
용인	← 동아리연합회 새내기 맞이 한마당 (23일~24일) → ← 확대운위 동연장 선거 (24일~25일) →	● 루마니어 체육대회	● 루마니어 개강총회	● 정기학생총회	● 아프리카어과, 중국어과 모꼬지

'98 군장학생 모집(학군, 학사사관)

1. 모집인원 : 1학년(○○명), 2학년(○○명), 3학년(○○명)
2. 지원자격 : 4년제 - 1학년('76. 1. 1 - '82. 1. 1출생자)
   3년제 - 2학년('75. 1. 1 - '81. 1. 1출생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98. 3. 16 - 4. 30(학군단 행정반)
   · 구비서류

1차 (지원서)	2차(신체검사)
· 지원서(사진첨부) 및 서약서 각1부 · 대입수능시험 성적증명서 1부 · 복무연장 또는 장기복무지원서 1부 · 천연색 사진(4×5cm) 3매	·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2부 · 재정보증 관계 서류 1부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세증명서)

4. 선발절차
   · 1차 : 서류전형(입학 및 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 2차 : 신체검사
5. 합격자 발표 : 1998. 8. 10
6. 특전
   · 학군사관 후보생 지원시 「加」점 부여, 선발시 우대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자동 선발)
   · 대학졸업시까지 등록금 및 학습 보조금 지급
   · 희망 및 전공 고려 병과분류 보직활용
   ·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대기업체 우대 선발 및 처우)
7. 문의전화 : 961-4411, 4412

1998. 3.

제119 학생군사교육단장

'99 학군사관후보생(R.O.T.C) 모집

1. 모집인원 : ○○명
2. 지원자격
   · 98년도 현재 대학2학년 재학생
   · 75. 1. 1 - 81. 3. 1출생자(20세 - 27세 이하)
   · 장교임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98. 3. 30 - 5. 2(학군단 행정반)
   · 구비서류

1차 (지원서)	2차(체력검정/면접평가시)
· 지원서(사진첨부) 1부 · 서약서 1부 · 대학1학년 및 2학년 1학기 성적증명서 1부 · 입학성적 증명서 1부 · 신원진술서(A양식) 1부 · 고교생활기록부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2부 · 천연색 사진(4×5cm) 4매	· 개인도장, 수험표, 신분증, 검정색 볼펜 지참

4. 선발
   · 1차 : 입학성적, 대학성적, 체력검정, 적성/면접평가
   · 2차 : 신체검사
5. 합격자 발표 : 1998. 11. 20
6. 특전
   · 희망 및 전공 고려 병과분류 보직활용
   ·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대기업체 우대 선발 및 처우)
7. 문의전화 : 961-4411, 4412

1998. 3.

제119 학생군사교육단장

'98 피보험자 건강진단 안내

◆ 실시대상
○ 피보험자 건강진단
- 1997년 12월 31일 이전 자격취득자로서 건강진단 실시일 현재 피보험자 자격유지자
○ 암검사
- 위장, 결·직장 : 40세이상 피보험자 중 희망자
- 유방 : 여성 피보험자 중 희망자
- 간장 : '98 피보험자 건강진단 결과 간장질환 유질환자 중 희망자
○ 간염검사 및 예방접종
- 간염검사 : 50세 미만 피보험자(건강진단시 포함 실시)
- 예방접종 : 간염검사 결과 항원 및 항체 음성자

◆ 실시기간
○ '98. 4. 1 ~ 9. 30(암검사 포함)
* 공무원에 대한 검진일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에 의거 공가처리

◆ 검진지역 및 방법
○ 의료보험증에 기재된 중진료권내의 희망 검진기관에 사전예약후 검진 실시 (암검사는 대진료권내에서 실시)
- 암검사와 피보험자, 건강진단을 동시에 수검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진료권내의 검진기관에서 수검 가능
* 희망 검진기관 선택 : 공단에서 배부한 건강진단 실시안내'리후렛의 「검진기관 명단」 참조

◆ 검진종목
○ 1차 : 진찰 등 25종목(우식증 등 10종목 구강검사 실시)
○ 2차 : 폐결핵 등 8개 질환 29종목
- 1차 건강진단결과 「질환의심자」에 대하여 해당 질환별 2차 정밀검사 실시

◆ 비용부담
○ 피보험자 건강진단 및 간염, 예방접종 : 공단 전액 부담
○ 암검사 : 수검자 50%, 공단 50% 부담

◆ 결과통보
○ 피보험자 건강진단 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를 회수하여 수검기관(학교)장에게 통보(수검기관장은 수검자에게 송부)
○ 암검사 :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통보

의료보험관리공단 제공

규칙적인 생활로 춘곤증을 이깁시다

봄이 오면 늘 찾아오기 마련인 춘곤증. 충분히 수명을 취해도 졸음이 쏟아지고 식욕이 떨어지면서 몸이 나른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춘곤증은 질병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조금만 신경쓰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춘곤증의 원인과 증상
○ 낮이 길어지고 기온이 올라가는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생체리듬이 적응하지 못해 생깁니다.
○ 겨우내 운동이 부족하고 피로가 누적된 사람일수록 춘곤증이 심하며 소화기가 약하고 추위를 잘 타는 사람,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도 잘 걸립니다.
○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나른한 피로감·졸음 외에도 식욕부진·소화불량·현기증을 들 수 있습니다.

◆ 춘곤증을 이기려면
○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중요
- 당분간만이라도 과음과 흡연을 삼가는 등 절제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질병이 많은 여름철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 식생활에도 신경을 써야
-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 주고 과일이나 야채를 섭취해 비타민 보충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봄나물로 식단을 꾸미는 것도 좋으며, 아침을 거르고 활력이 없는 오전을 보낸 상태에서 점심을 과식하게 되면 식곤증까지 겹쳐 춘곤증이 더해지므로 아침에는 생선·두부 등으로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도 춘곤증 극복의 한 지혜입니다.
○ 적당한 운동도 예방책
- 몸을 펴고 늘려주는 체조와 산보 등의 [illegible] 운동은 춘공증을 이 [illegible] 도움이 됩니다.
- 의욕이 앞서서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거나 잠자기 전에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쾌적한 수면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긴장감을 일으키므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 제공

수필-헌책방을 찾으며

나와 책 그 사랑의 선후관계

책사랑, 우리 사회 밑바탕 만들기

내가 책을 사랑하는지 책이 나를 사랑하는지 책방을 찾아가며 가장 조심하는 일은 "책이 나를 사랑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다잡는 일이다. 책을 살 사람도 나요, 책을 사서 읽을 사람도 나요, 책을 사 읽어 삭여내는 사람도 나요, 삭여내서 펼칠 사람도 나인데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책이 주체가 되면 읽지 않을 책도 사서 읽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고 만다. 그래서 "책이 나를 사랑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쓴다.

그렇지만 지난날을 돌아볼라치면, "책이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면, 참으로 "내가 책을 사랑하지"도 못했으리란 생각도 든다. 책이 나를 사랑하여 온갖 책을 다 읽어 보고, 온갖 책들도 사 보고 하여 뒤늦게 하나둘씩 깨달으며 참으로 "책을 사랑하는 길"을 몸으로 깨우치고, 사람들에게도 "책이 나를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도 할 수 있게끔 되었다.

책을 사놓고 방에 두기만 하여 가끔 꺼내서 들여다 보고 혼자서 즐거워 할 수도 있고, "나는 이러한 장서를 갖고 있노라" 이야기를 자랑스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책을 제대로 읽어내고 몸으로 받아들여 삭여낸 뒤, 그처럼 받아들이고 삭여낸 것들을 두루 모으고 가다듬어 온누리에 펼쳐내는 일과 견주어 보자. 홀로 책을 즐기는 일과 책을 읽어 펼치는 일은 얼마나 다른가를 느껴 보자.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라 하여 책 읽기를 꺼려 할 수도 있지만, 책을 읽으면 그렇게 읽은 것은 다시 꺼내놓아야 '올바른 책읽기'가 이루어진다. 재미로만 읽어서는, 자기 자신을 깨우치려 읽기만 해서는, 남들도 다 읽으니까 읽어서는 올바른 책읽기가 될 수 없으며 우리 삶과 사회에 쌓인 그릇된 골을 더 깊게만 할뿐이다.

'읽은느낌(독후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책을 제대로 읽지 못했거나 자기 것으로 삭여내지 못함"을 말한다. 이럴 때는 두 참, 세 참 줄기차게 다시 읽거나 곰곰이 되짚으며 "책을 읽어서 느끼거나 얻은 일"들을 꺼내야 한다. 참으로 책을 올곧게 읽었다면, 읽은 것을 다시 펼쳐야 옳다. "자기가 입은 은혜는 다른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갚"듯 "책을 읽는 일"도 책을 읽지 못하는 이들에게 책 이야기를 하거나, 책을 읽을 이에게 길잡이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책을 읽으며 얻고 느낀 것을 세상에 펼쳐 세상을 올곧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 번영하던 헌책방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IMF시대인 지금 돈 절약하며 양질의 책을 구할 수 있는 헌책방을 많이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사진은 학교앞 헌책방 모습으로 현 세태를 반영해서인지 반쯤 문이 닫혀있다.

예순까지 산다고 하고 주마다 책 두 권을 읽으면 죽기까지 6000권을 읽을 수 있단다. 그러나 온누리에 있는 책은 셀 수 없이 많으며 앞으로는 더 많은 책이 세상에 나오리라. 이러한 흐름 속에 올곧게 책 한 권 읽기란 어려울 수도 있고 책을 읽을 때마다 읽은느낌을 모두 꺼내기도 힘들 수 있다.

한 권마다 읽은느낌을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권씩 책을 읽어나가며 슬기를 하나둘씩 쌓아나간 뒤에 그러한 슬기를 모아 또다른 책 한 권을 세상에 낼 수도 있어야 한다. 책을 꾸준히 내는 일은 그만큼 그동안 우리 문화나 기술을 쌓은 뒤, 쌓으며 갈고 닦은 것들을 한데 모아 더 폭넓고 깊은 문화와 기술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되고자 하여 내는 것이다. "옛것을 익혀 새로움을 배운다"는 말은 옛 적에 쌓은 것을 바탕으로 삼아 새로운 것을 이룬다는 말로, 책을 읽을 때는 그동안 읽은 수 천, 수 만 권을 삭여내어 새로운 하나를 이룸을 일컫는 말이다.

사람 사이에서 '발전'이란 이처럼 스스로 읽은 책을 '읽은느낌'으로 하나씩 쌓아나간 뒤 하나로 뭉뚱그려 '새로운 책 한 권'을 이룸이 모여 이뤄진다. 대통령을 가려낼 때 수백만 표가 모이듯, 우리가 책을 읽어 얻고 느낀 것들도 모여서 새로운 문화와 기술로 다시 돋아날 수 있으며, 돋아나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다시 돋아나려면 우리가 책을 읽은 뒤에 '읽은느낌'을 얻어야만 돋아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사랑해야" 한다. "책이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는 죽어서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책을 사랑"하면 우리 문화와 기술은 튼튼하고 뼈대 굵게 밑바탕을 세워 아름답고 폭넓게 널리 가꿔나갈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모든 곳에서 '밑바탕'이 될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책읽기'조차도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않아서이다. 우리는 어느 것을 배우더라도 "책을 읽고 책을 곁에 두며" 배우지만 그렇게 가까이 하는 책을 제대로 읽어 삭여내지 않기에 우리 사회는 밑바탕이 터무니없이 얕으며 모자라고 만다.

이 책이 좋고 저 책은 나쁘다는 말은 무게있는 말도 아니며 다룰 말도 아니다.

우리는 어느 책을 보거나 읽더라도 '우리 것'으로 삭여내어 펼칠 수 있으면 될뿐이다. 다만 "우리가 책을 사랑하여" 책을 올곧게 읽어야만 "이 책이나 저 책이나 상관없다"는 말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참되게 "책을 사랑하여" 그처럼 책을 사랑하여 얻고 느낀 것들을 온누리에 펼치자. 이것은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들이 져야 할 '짐'이기도 하다. 더불어 "책을 아끼거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으레 할일이기도 하다.

최종규
〈서양·네덜란드어 2〉

지난 18일(수) 비상학생총회가 열린 노천극장 옆에서 학생처 직원들이 유인물을 읽어보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등 심각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듯 보인다.

김순배
〈서양·서반아어 3〉

서평 - 존재의 시간

시간, 존재의미 밝혀지는 곳

전문적 연구 기반한 학술적 번역서

마틴 하이데거의 대표작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은 세계 지성계의 철학적 고전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서양 사상의 '기초'를 간파할 수 있게 되고, 이와 더불어 우리들 자신의 참모습도 비추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두 권의 번역서가 출간되어 있지만, 그것들은 그 나름의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학술적 번역서로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그러나 본교 철학과의 이기상 교수가 번역한 '존재와 시간'(까치글방, 1998)은 '사태 자체'에 대한 '옮긴이'의 전문적 연구들에 바탕한 학술적 번역서로서, 우리들에게 학문적 신뢰감을 주는 책이다. '존재와 시간'은 '존재 문제'를 새롭게 던지고 있다는 점과 '현상학'과 '해석학'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명하다.

하이데거는 '존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묻는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그는 먼저 존재를, 그것이 내보여지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현상적으로 기술하고자 하며, 그런 다음 이를 바탕으로 존재가 그러한 모습으로 현상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들'을 현상학적으로 기획투사한다. 그러나 '존재'가 자신을 현상할 수 있으려면, 즉 자신을 내보일 수 있으려면 존재는 자신을 내보일 수 있는 '열린 자리'를 필요로 한다. 만일 그렇다면 '존재 문제'를 묻고 거기에 대답한다는 것은 존재를, 그것이 이미 열어 밝혀져 있는 '자리'에서부터 해석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그러한 '열린 자리'는 '존재'를 이해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 즉 'Existenz'이다. 'Existenz'는 '밖에 나가 서 있음'을 뜻하며 하이데거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이 자신의 유한한 가능성들에로 미리 '앞질러 달려간다'는 의미에서의 '초월'을 뜻한다. 인간은 실존하면서, 즉 자신의 가능성들에로 앞질러 달려가면서 그 가능성들 가운데 자신이 선택한 가능성을 이루려고 마음졸이면서 존재한다. 인간의 '존재의미'는 이러한 마음졸임이란 의미에서의 '염려'이다.

그러나 '염려'는 인간이 자신의 가능성들에로 앞질러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만, 즉 인간이 '미래적'이기 때문에만 가능하며 또한 '염려'는 인간이, 자신이 이미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만, 즉 '과거적'이기 때문에만 가능하고, 염려'는 인간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만, 즉 '현재적'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존재 의미'로서의 '염려'는 '미래'와 '과거' 그리고 '현재'의 통일성 즉 '시간성'에 근거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시간성' 내지 '시간'이 바로 '존재의 의미'가 열어 밝혀지는 '근원적 자리'인 것이다.

구연상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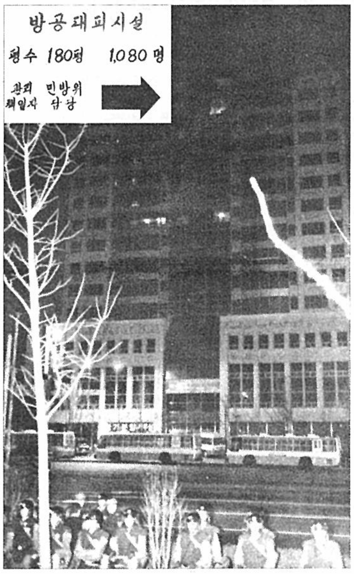


사진 수필

그의 집에 관하여 들리는 말이 많다. 90평이래더라... 아니 옆에 붙어 있는 집까지 뚫어서 180평이랜다...
90평이든, 180평이든, 우리는 그 집앞에 갔었다. 무식하게 덩치가 큰 집이었다.
그의 집 앞에는 그의 수 백명의 하인들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전투경찰들이 머리부터 발까지 검은 옷으로 쫙 빼입고...우리학교 180평의 지하 비상구에는 1050명이 들어갈 수 있단다.

임승희 기자

부정부패·경제파탄 김영삼을 구속하라 부정부패·경제파탄 김영삼을 구속하라

그들의 외침은 끝나지 않았다

노수석
96년 3월 29일, 연세대생으로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시총련 집회' 도중 경찰의 토끼몰이식 시위진압으로 인해 종로5가에서 타살되었다

류재을
97년 3월 20일, 조선대 개강투쟁선포식을 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도중 정문에 배치된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사망하였다

4월 2일은 김영삼 사법처리와 정리해고 반대
공정한 IMF 재협상을 요구하는 한총련 총궐기가 있습니다

96년 3월 29일은 노수석 열사가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를 외치다 사망한 날입니다.

97년 3월 20일은 류재을 열사가
한보비리의 진상규명과 김영삼 정권퇴진을 외치다 사망한 날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김영삼 사법처리를 외칩니다.
한보·대선자금 등 수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우리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김영삼.
이제 한총련 백만학도와 4천만 국민은 김영삼 사법처리를 외칩니다

故 류재을, 노수석 군의 명복을 빕니다.

故 류재을·노수석군의 명복을 빕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